

# 공군

[www.airforce.go.kr](http://www.airforce.go.kr)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8008



SEOUL AIRSHOW 2001

2001

# 10

통권 제280호

## 공군본부

## C O N T E N T S

|                                  |    |
|----------------------------------|----|
| 지휘봉                              | 3  |
| 이달의 전쟁영웅                         | 4  |
| 칼럼                               | 5  |
| 생각해 봅시다                          | 7  |
| 공군은 지금                           | 8  |
|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 11 |
| 기획특집/전략정보와 공중우세                  | 12 |
| Col Seoul Airshow 2001           | 14 |
| 항공기 열전                           | 16 |
| Air Power                        | 19 |
| F-X Q & A                        | 20 |
| 숨어있는 공군을 찾아라                     | 22 |
| Zoom In                          | 23 |
| 현장탐방                             | 24 |
| 公報 25時                           | 26 |
| 만나고 싶었습니다                        | 28 |
| 이달에 만난 사람                        | 30 |
| I Love Air Force                 | 32 |
| 마음의 양식                           | 33 |
| 가을테마                             | 34 |
| 책으로 읽는 세상                        | 35 |
| 문화가 현장                           | 36 |
| 찾아가자 인터넷                         | 39 |
| 마음으로 읽는 글                        | 40 |
| Green Air Force                  | 42 |
| 법무상담                             | 44 |
| 의무상담                             | 46 |
| 가상전망대                            | 47 |
| 이달의 호국인물                         | 48 |
| 이달의 문화인물                         | 49 |
| 이달의 독립인물                         | 50 |
| 강력추천! 공군추천!                      | 50 |
| 클릭! 동아리                          | 51 |
| 호진이의 병영체험                        | 52 |
| 장병문예                             | 53 |
| 사이버 병영생활                         | 54 |
| 항공계 소식                           | 55 |
| 알립니다                             | 56 |
| 전구서(田龜書) 공군 소위                   | 57 |
| 미래전은 전략정보에 좌우된다!                 | 58 |
| "가위가 아닌 바늘과 실을 주시오"              | 59 |
| 전략정보를 통해 한국 공군의 미래를 그린다          |    |
| 전략정보와 국가안보                       |    |
| 미리 보는 '서울 에어쇼 2001'              |    |
| THUNDER From The SKY B-1B Lancer |    |
| 군사기만과 항공작전(2)                    |    |
| F-X 50문 50답(4)                   |    |
| 거미줄 같은 방공망으로 하늘을 수호한다            |    |
| 요격관제 훈련용 시뮬레이터 국내 첫 개발           |    |
| 작은 망치의 신화                        |    |
| COPE THUNDER 훈련 취재기              |    |
| 『샘터』 편집실을 찾아                     |    |
| 『라켓볼로 아시아 정복!』                   |    |
| 블랙이글 팀웍!                         |    |
| 지금, 가을로 물든 그때가 그림습니다             |    |
| 가을날의 독백                          |    |
| 무 생명의 발원과 활짝 피어남의 기쁨             |    |
| 24시간 사회                          |    |
| 韓流 熱風, 이제는 냉정해 지자!               |    |
| 인터넷으로 뉴스를                        |    |
| 2001년 서울, 어느 늦은 밤                |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하기               |    |
| 방문판대, 이제는 환불받자!                  |    |
| 재미있는 우주의학 이야기(1)                 |    |
| 시리도록 청명한 10월에                    |    |
| 백마 3용사                           |    |
| 설 충                              |    |
| 유 근                              |    |
| 하늘을 담은 공군인이 되어 보자!               |    |
| 선인의 뉘이 활시위를 당기는 공사들              |    |
| 구름 속에서 커버린 나                     |    |
| 가을유감                             |    |
| 지리산이 거기 있었네~                     |    |
| 가을, 훈련소 회상 / 공군에서 처음 맞이하는 가을     |    |
| 장병 '네터켓' 교육 강화 外 1건              |    |
| 정찰용 무인항공기 국내 첫 개발 外 2건           |    |
| 항공우주전략연구소 설립 추진 外 4건             |    |





참모총장 공군대장 이억수

20세기와 함께 출발한 항공력은 항공우주과학과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지·해상군 지원이라는 고전적인 관념과 한계를 넘어, 이제는 전쟁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전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금세기에는 전쟁영역이 우주는 물론, 정보영역으로 무한히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력은 보다 폭넓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다양한 안보위협하에서 국가안보의 알파와 오메가 역할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공군도 전·평시 구분 없이 전략적 수준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중과 우주, 그리고 정보 영역을 이용하여 국가의지를 관철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구서(田龜書)

공군 소위

공군본부 군사연구실



정찰비행대 소속 전구서 이등상사는 L-4연락기로 영천지역의 전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적 대공포화를 뚫고 영천중학교 운동장에 착륙하여 약 1시간의 적정을 파악한 다음, 그 결과를 제2군단에 긴급히 연락하였다. 이러한 정찰 보고는 우리 제2군단으로 하여금 적군을 포위, 섬멸케 한 영천대첩의 길로 유도하였던 것이다.

전구서 소위는 1929년 2월 7일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읍 승호동에서 부친 전회린 씨와 강삼차 여사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43년 3월에 평양 제3공립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우쓰노미야 육군비행학교를 졸업하였고, 해방 후 귀국하여 1948년 9월 18일 항공병 2기생으로 육군항공기지사령부에 입대, 그해 11월에 L-4항공기 조종사가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전구서 이등상사는 여의도기지에서 L-4항공기에 국산폭탄과 수류탄을 싣고 문산, 의정부, 동두천 방향으로 출격하여 폭탄을 손으로 던지는 등 적의 남하를 저지하였고, 동년 7월 6일 대전에서 창설된 정찰비행부대에 배속되어 아 지상군에 대한 정찰 및 연락, 지휘관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전구서 이등상사는 육군전사에 빛나는 영천전투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1950년 9월 3일, 적 제4군단이 야간에 영천방면에서 대대적인 포위공격을 가하여 우리 제2군단으로 하여금 영천→포항을 연결하는 방어선 남방으로 후퇴케 하였고, 위기에 처한 제2군단은 대구기지(대구경마장)에 주둔하고 있던 공군정찰비행대(T-6 및 L-4/5)에 전투상황을 정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9월 4일, T-6기 4대가 영천시가지와 그 일대에 대한 공중정찰을 실시한 결과, 적은 영천 시내에는 없었고, 주력부대를 자양, 자천, 신령 남방에 배치하고 보현산 남방에서 적 포대가 지원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6기는 즉시 이 사실을 제2군단에 연락하는 한편, 적 지상군에 대해 기총사격을 가하였다. 같은 날, 정찰비행대 소속 전구서 이등상사는 L-4연락기로 영천지역의 전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적 대공포화를 뚫고 영천중학교 운동장에 착륙하여 약 1시간의 적정을 파악한 다음, 그 결과를 제2군단에 긴급히 연락하였다. 이러한 정찰보고는 우리 제2군단으로 하여금 적군을 포위, 섬멸케 한 영천대첩의 길로 유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 10월 7일, 전구서 이등상사는 육군소령 전양명 소령 동승하에 L-4기를 조종하여 화천 방면의 적정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 지상군의 대공포화에 피격되어 화천 저수지 남방 10km 지점에 추락, 22세를 일기로 장렬히 산화하였다. 전구서 이등상사는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사후 공군 소위로 추서되었다. ㉠

# 미래전은 전략정보에 좌우된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연구원 최 윤 도

1991년의 걸프전은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제시해 주었다. 이라크군은 타격력 중심의 재래식 군대였던 반면 미국은 정보능력과 정밀 타격 무기를 결합시킨 새로운 전쟁방식을 택함으로써 국지전 양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이 이끄는 다국적군의 합동감시 및 표적 레이더 시스템(JSTAR)과 공중 조기경보기(AWACS) 등을 통해 이라크군의 움직임과 전장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인공위성과 자동위치측정 체계(GPS)를 활용하여 토마호크와 같은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로 이라크군의 지휘부와 전략시설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다. 이로써 공군력은 베트남전에서 보여 주었던 무기력과 비효율성의 이미지를 완전히 극복하였다. 그리고 미래전에서는 항공·우주 분야의 역할이, 그 중에서도 전략정보의 획득과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을 시사하였다.

## 군사혁신의 핵, 공군과 전략정보

미국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쟁수행 방식의 획기적 변화의 가능성을 '군사혁신(RMA)'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다른 선진국들과 동맹국들, 그리고 경쟁관계에 있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오웬 제독은 군사혁신의 중심축으로 '신시스템 복합체계'를 개념화하였다. 기술의 발전은 첫째, 정보와 감시, 정찰을 의미하는 ISR(Information,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둘째, 명령과 통제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C4I, 셋째, 정밀타격 능력

(Precision Force)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세 가지 영역들이 상호연계되는 경우 서로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생겨나게 되며, 이 한 가운데에 공군과 전략정보가 있다.

## 전략정보로 통합되는 전장상황

그렇다면 전략정보란 무엇인가? 흔히 전쟁의 수행은 세 가지 분석수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략수준, 작전수준, 그리고 전술수준이 그것이다. 여기서 '전략'이란 의미는 전쟁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와 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쟁의 기획 자체에 대한 수정이나 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중요도를 띠는 공격과 수비 행위를 지칭한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지금까지 위의 세 가지 수준의 경계선을 점점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그 구분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 정보능력의 향상은 상대편 지휘중심부의 선택과 발견을 가능하게 하였고, 첨단 정밀무기의 발전은 전술적 수준이라 불리던 소규모 단위 부대의 작전만으로도 전쟁의 기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intelligence)란 무엇을 지칭하는가? 정보는 수집 주체에 따라서 인간이 수집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HUMINT와 기계가 수집하는 정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정보의 형태에 따라 이미지 중심의 IMINT와 각종 신호체계로 이루어진 SIGINT로 나뉘어진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래전의 주무대인 우주와 공중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란 모두가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

장착된 기계장비에 의한 것이며, 정책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수준의 정보는 대부분이 이미지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높은 해상도(군사용은 1m 이상)의 화상위성이나 투시능력을 지닌 레이더 위성, 그리고 조기경보기(AWACS), 무인항공기(UAV) 등이 주역을 맡게 될 것이다.

### 가시화되는 군사혁신

이러한 전략정보의 중요성은 주요 국가들에서의 군사혁신에 대한 정책제안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통합비전 2010에서 제시하는 미군 미래전력의 목표인 '전방위 군사력 우위'의 핵심을 '전장에 대한 인식의 우위'에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군사혁신 프로그램을 '전략적 현대화'라고 부르며, 추구하는 군사독트린을 '전략적 공격'이라 부른다. 이는 짧으면서도 결정적인 중심 타격으로 적의 지도부와 군대, 시민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작전의 수행은 '정보 우위'의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혁신은 'Info-RMA'라 부르며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전수방위 정책에 부응하는 군사혁신으로써 밀도 높은 센서와 정보 인프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적의 침입을 사전에 포착하고 저지하는

능력의 확보를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주요국가들은 모두가 전략정보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제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중국의 AWACS 체계 건설의 핵심이 될 팔콘 레이더 체계 판매 계획을 철회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미 중국으로부터 2억5천만불을 수령한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을 수용한 결정이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이 H-2A 로켓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2002년 4월로 계획된 4기의 고해상도 레이저 위성 발사 계획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한편 이라크 비행금지 구역을 정찰하던 미국의 무인항공기 Predator가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전략정보 기술의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국력의 열세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며 아직 전략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태세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주권을 유지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정보 능력의 확보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최소한의,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노력임에 틀림없다. ㄹ



## “가위가 아닌 바늘과 실을 주시오”

제8전투비행단 중위 오 동 희

인도의 한 고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이자드라는 성자에게 어떤 사람이 황금으로 만든 가위를 선물했습니다. 그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황금가위를 바이자드 앞에 내놓고 흠족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바이자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나는 나누거나 분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바늘과 실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갈라진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바늘이 아니어도, 빛나는 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가위는 값비싼 것일지는 몰라도 나에게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위는 자르고 나누는 도구입니다. 이어져 있는 것을 갈라서 조각을 만듭니다. 하나된 것을 나누어 여러 개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바늘과 실은 나뉜 것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위나 칼은 다른 존재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바늘과 실은 상처를 꿰매 아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찬물을 끼얹듯이 싸늘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평화를 만드는 이를 보고 싶습니다. 가슴이 따뜻

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부드러운 말씨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따뜻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은 피하게 되고 심한 경우엔 그와의 만남이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저마다 가위나 칼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서야 어떻게 평화가 만들어지며 단결이 되겠습니까? 소리없이 남을 배려하고 돕는 바늘과 실로 살아갈 때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공군인입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하여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대한 꿈은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서로 싸우고 상처주고 화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꿈은 그야말로 헛된 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나가는 공군인이 됩시다. 채찍이나 가시돋힌 말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공군인이 됩시다.

오늘 저와 함께 평화 지킴이(Peace Maker)가 되도록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①

# R O K A



- 1 연세대 국제학술연구소와 美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차 공군력 국제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억수 참모총장
- 2 공군 최초로 공군본부 주임원사 이·취임식 거행
- 3 작전사령부가 설치한 한국문화 홍보관에서 한국문화 소개행사를 가진 후 미군장병 및 가족들이 우리 전통놀이인 투호를 즐기고 있다.
- 4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승리를 위한 '필승의 밤' 행사가 공사총동참회 임원과 공사 지휘관 참모, 생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 5 낙하산 강하 훈련에 앞서 각종 장구를 점검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

# Force



- 6 경남 의령군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불발탄의 탄종을 식별하고 있는 제3훈련비행단 폭발물 처리반
- 7 F-16 전투기 주기검사 출고 800회 달성 기념식에서 검사중대원들과 악수하고 있는 제19전투비행단장
- 8 육군 공병부대와 합동으로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제18전투비행단 장병들
- 9 공사 50기 생도들을 대상으로 비행단 현장교육을 실시한 제16전투비행단
- 10 12개년 무사고 비행 달성 후, 대대장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102전투비행대대 장병들





- 11 에너지 절약 생활화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변전실에서 전기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제16전투비행단 장병들
- 12 군가 경연대회를 개최한 제17전투비행단
- 13 대비태세의 일환으로 호크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는  
방공포병사령부 예하 8988부대 장병들
- 14 남해 생환훈련장에서 수상침투 훈련을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는 제5전술공수비행단 공정통제 장병들
- 15 3만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한 110전투비행대대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띤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 서울 서문여고생들의 격오지 레이더기지 병영생활 체험 행사를 적극 지원한 제8145부대



▲ 부대 인근 주민들을 초청, 대민 유대강화 행사를 실시한 제17전투비행단



청주 현양원을 찾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항공의료원 장병들



▲ 인근 초등학교 놀이터 보수 및 환경 개선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제5전술공수비행단 장병들



▲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을 초청, 부대견학을 실시한 제8전비행단

# 전략정보를 통해 한국 공군의 미래를 그린다

## - 제4차 공군력 국제학술회의 -

편집실 / 사진 정수근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와 미국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4차 공군력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8월 30일 '전략정보와 공중우세'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해 개최된 학술회의에서는 '미래전, 전장관리 그리고 C4I : 한국군에 대한 함의와 요구'를 주제로 한국 공군의 발전 방향과 통일 이후의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향후 전장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요소로 평가되는 전략정보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략정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 물적 토대를 이루는 조기경보체계, 무인기술(無人技術)의 유용성과 한계가 함께 검토되어 이번 회의의 성과를 기대케 했다.

###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위한 학문적 뒷받침

학술회의 시작에 앞선 축사에서 이억수 공군 참모총장은 '전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전력'인 항공력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우주와 정보영역으로 확장되는 21세기 전쟁양상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형 공군력 건설'과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특히 '항공력 중심의 정보 전력 운영이 전쟁주도권을 장악하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구상방안으로 공군의 차기전투기 사업과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피력하였다.

이어 천용택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정보수집체계와 조기경보체계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전략정보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한국군의 전략정보자산 확보 방안으로 '전술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정찰능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항공기의 도입'과 '조기경보통제기의 확보'를 제시했다.

### 새로운 군사지평을 향한 변화 모색

전체 3개의 패널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는 사례중심의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전략정보, 조기경보, 무인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이끌어 냈다. 제1패널에서는 '전략정보와 국방기획'을 주제로 미국, 중국, 일본이 보여주는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 RMA)과 전략정보와의 관계설정을 살펴본 뒤 한국에서의 전략정보에 대한 전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랜드연구소의 Greg Treverton



"정보화시대 군사력 운용의 변화는 정보와 공중전력의 조화"로부터 발생했으며 "오늘날 모든 경우에 있어 전쟁을 지배하는 것은 정보와 결합된 항공우주요소"이다. 또한 "최근의 주요전쟁 대부분이 항공력에 의한 공중선제기습"이었으며 "우리나라의 복잡한 작전환경을 극복하고 외부위협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경고를 가능케 하는 조기경보체계"의 발전이 필요하다.

은 탈냉전기에 전략정보가 국방기획의 핵심이 되는 이유로 '정보가 관여해야 하는 잠재 위협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 형태와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들로 확장' 되었음을 지적하여 전략정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조기경보, 전투준비태세, 그리고 공중우세'를 논점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기경보체계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미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의 Jeffrey R. Barnett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보화시대 군사력 운용의 변화는 정보와 공중전력의 조화"로부터 발생했으며 "오늘날 모든 경우에 있어 전쟁을 지배하는 것은 정보와 결합된 항공우주요소"임을 강조했다.

배창식 공군 전투발전단 단장 역시 "최근의 주요전쟁 대부분이 항공력에 의한 공중선제기습"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잡한 작전환경을 극복하고 외부위협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경고를 가능케 하는 조기경보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패널 주제로는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인정찰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Guy

Aviram박사는 무인기의 장점인 '다양성, 생존성, 지속성, 염가성'을 통해 '우월적 전장정보 제공, 공중우세 유지'가 가능함을 역설했다. 경상대학교의 조태환 교수는 "중동전, 걸프전, 보스니아전을 통해 무인기 시스템의 효과가 입증"되었다면서 한국 공군도 무인기 운용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 우리 공군이 나아갈 길

이날 학술회의는 시종 진지하면서도 열띤 논의와 토론이 뒷받침되어, 아직 우리에게선 요원한 전략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모든 패널 발표가 끝난 후 이루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전략정보와 한국 공군의 미래'에 대한 토론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전망제시가 이루어져 미래 공군력 건설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개발한 정찰용 무인항공기에서 확인되듯, 우리에게도 변화의 방향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정보 확보와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 전략정보와 국가안보

## - 제4차 공군력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천 용택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며 해방 50주년이 지난 현재에도 남북한 사이에는 여전히 첨예한 군사적 대결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은 선린과 우호의 대상이지만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주장처럼 우리 안보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수준 및 그 추세, 그리고 국내정치 변화는 안보상의 관심을 높게 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4대의 조기경보기와 4척의 이지스함을 실전 배치하였고 향후 5년간 총 23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첨단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TMD능력을 보유한 신형 이지스함, 공중급유기, 그리고 군사용 정찰위성 등의 확보를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군사대국화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패전 5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8월 13일에는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신사참배를 강행함으로써 일본 내 국수적 내셔널리즘의 대두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그 동안 전력증강이 미진하였으나 최근에는 전력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군은 이미 핵 잠수함과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한 가운데 추가로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그리고 항공모함 등 해·공군 위주의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대외 군사투사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고 있다. 이 같은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국가안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의 군사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정보체계의 구축

그렇다면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정보수집체계와 조기경보체계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전략정보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는 이미 전장에서 특정의 참모적 기능에서 벗어나 작전 그 자체로 평가받기에 이르렀고 정보를 고려치 않고 국가안보를 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다. 1991년의 걸프전은 전략정보가 전쟁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다국적군의 감시 및 정찰능력은 이라크 지상군의 은밀한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전쟁기간 내내 미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전역 내의 모든 공중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이라크 항공기의 비정상적 비행에 대한 경보를 적기(適期)에 제공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보수집능력과 조기경보능력은 이라크의 의도와 능력, 그리고 군사적 취약성까지도 낱알이 식별해냄으로써 다국적군이 전쟁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던 것이다.

###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래전의 양상은 정밀 타격능력의 향상, 작전템포의 신속화, 우주공



우리의 안보환경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든 국가안보는 최고의 국가이익임에 틀림없으며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력 구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미래전의 양상이 정보전의 형태로 전개될 것임을 감안할 때, 전략정보자산의 확보는 국방력 건설에 있어서 최우선적 과제라 할 것이다.

간의 군사적 이용, 그리고 무기체계의 첨단과 학화 등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 같은 전장환경에서 전략정보는 국가지도부와 작전지휘관이 사태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심하는 가장 중요한 전력요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정보에 관한 한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현주소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전략정보자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보수집체계의 측면에서는 전략정찰능력을 보유한 항공기를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의 정찰능력은 전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첨단기술의 정찰 장비나 수집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정보에 관한 한, 주한미군 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우주공간을 이용한 정보수집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걸프전 이후 각국은 군사위성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까지도 우주공간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늦은 감

이 없지 않다.

둘째, 조기경보체계의 측면에서는 조기경보통제기의 확보가 절실하다 하겠다. 세계 각국은 조기경보 및 감시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한국군은 오직 지상 레이더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반도 전장환경에서 공중감시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조기경보능력은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중기 국방력 증강계획에서 조기경보 통제기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 국가안보, 최고의 국가이익

우리의 안보환경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든 국가안보는 최고의 국가이익임에 틀림없으며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력 구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미래전의 양상이 정보전의 형태로 전개될 것임을 감안할 때, 전략정보자산의 확보는 국방력 건설에 있어서 최우선적 과제라 할 것이다.①



## 미리 보는 '서울 에어쇼 2001'

21세기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주도권 확보와 범국민적 관심을 드높이기 위한 제3회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전시회(약칭-서울 에어쇼 2001)'가 오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공군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금년 행사는 기존 항공우주산업분야 외에 지·해상군 장비 등 방위산업 전반에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25개국 25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큰 규모로 치루어질 예정이다. '서울 에어쇼 2001'의 다양한 행사들을 미리 살펴보았다.



### 최첨단 항공기를 한 자리에

Rafale, F-15E, EF-Typhoon 및 Su-35를 이번 에어쇼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이들 기종의 시범 비행도 예정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 줄 것이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최첨단 군용기도 만나볼 수 있다. 미 공군 태평양사령부에서 F-15C, F-16C, P-3, C-12, KC-135, A-10 등을, 미 8군에서 OH-58, CH-47, AH-64, RC-12, RC-7을 일반에 선보인다. 이외에도 C-17, B-1, B-52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 SEOUL AIRSHOW 2001



### 에어쇼의 꽃, Blackeagles VS Thunderbirds

국내 항공저변의 확대와 관심유도를 위해 마련된 '퍼블릭 데이' (10월 19일~21일)에는 최첨단 항공기 외에도 많은 볼거리들이 제공된다. 오전, 오후 하루 두 차례 예정되어 있는 각종 비행행사에서는 F-16을 통해 스케일 큰 곡예비행을 선사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미 공군 곡예비행팀 Thunderbirds의 비행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공군의 곡예비행팀인 Blackeagles도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기동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들간의 곡예비행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관람포인트가 될 것이다.





## 흥미만점!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대회

전국 규모로는 처음 열리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대회도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이번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는 F-16 시뮬레이션 게임 'Falcon 4.0'으로 치러지는 전투기부문과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간판 시뮬레이션 게임인 'Flight Simulator 2000'을 사용하는 민항기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전투기부문에서는 2대2 공중전을 기본으로 하여 치러지며 민항기부문에서는 비행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항공기 이착륙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제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편 이번 대회의 입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군의 조종사 훈련과정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신체에 받는 중력가속도(G)에 의한 경험이 전무한 사이버 조종사들이 6G라는 실제 비행환경을 경험하게 되며, 비행착각과 같은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 THUNDER From The SKY B-1B Lancer



##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B-1은 미국에서 1962년에 시작된 발전형 유인전략 항공기(AMSA : Advanced Manned Strategic Aircraft)계획으로부터 탄생되었으며 저고도 침투기로서 대륙간 핵 공격이 주임무이고 재래식 공격도 가능한 미 공군의 폭격기이다. B-1 폭격기는 대륙간 탄도탄(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과 함께 3대 핵 방어 전력개념의 하나인 전략폭격기 B-52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B-1A의 첫 시험비행은 1974년에 실시되었으나 1억불을 넘는 대당 가격에 따른 재정 압박과 스텔스성이 강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 : Air-Launched Cruise Missile) 실용화에 대한 관심 고조로 전략유인 폭격기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1977년 카터 행정부에 의해 생산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국방력 강화 방침에 따라 차기 폭격기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고 스텔스 폭격기 실용화 이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B-1개조형 100대의 생산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이를 B-1B로 명명하였다.

B-1B는 1984년 10월 첫 비행을 실시한 후 1985년부터 미 전략공군에 인도되어 1986년도에 초기 전력화가 이루어졌다. 미 공군은

1988년도에 100번째에 마지막 B-1B를 인수하였고 1990년에는 Lancer라는 명칭을 별도로 부여하였다. B-1B는 스텔스성 항공기로서 10km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 B-1B 항공기는 핵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폭풍, 고열, 압력, 전자펄스 등에 견딜 수 있도록 동체의 가로 및 세로 구조물의 간격을 좁힌 아주 튼튼한 구조와 합금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전방감시레이더와 자동조종장치를 결합한 지형추적방식을 갖추고 있어서 평원 상공을 비행할 때에는 고도를 60m까지 낮출 수 있다. 또한 저공·고속 비행시 난기류에 의한 기체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 동체 전방 좌우에 30°의 하반각을 갖는 소형 귀날개(Canard)가 부착되어 있다. General Electric사가 개발한 F101엔진은 한 Nacelle에 2기씩 총 4개의 엔진이 기체중심선 가까이 장착되어 있어 초저공 침투시 난기류에 의한 기체의 자세변화에도 흡입공기의 유입을 유연하게 하여 Compressor의 실속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1988년까지 모두 100대가 인도되었으나 4대는 사고로 손실되었고 현재 96대가 운영중이다. 추가생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B-52가 퇴역시 B-1B는 B-52의 임무를 담당케 될 것이며 장거리, 장시간 비행능력이 있으므로 현재 B-52가 수행하는 대함 공격 및 기뢰 부설 등의 해상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다. B-1B는 1988년 '사막의 여우' 작전시 최초로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B-52의 사용 전례로 보아 B-1B도 기체, 항전장비, 엔진, 무장계통 등의 주요부분에 대한 성능개량을 통하여 향후 40~50년 동안은 작전에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 ▶ 성능 및 제원

- 제작사 : 보잉사
- 승무원 : 4명(조종사, 부조종사, 공격 및 방어시스템 조작수)
- 엔진 : 4 × F101-GE-102 Turbofan
- 기체 : 기폭/(최대 : 41.7m, 최소 : 24.1m), 전장/44.81m, 기고/10.4m
- 최대무장탑재 : 내부(75,000lbs), 외부(59,000lbs)
- 최대항속거리 : 12,000km
- 최고치트속도 : 965km/h

## 군사기만과 항공작전(2)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9월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군사기만과 항공작전을 마무리하면서 항공작전을 통한 상륙작전 군사기만과 현대전 기만전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항공작전을 통한 상륙작전 군사기만

**노르망디 상륙작전**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군 항공작전은 독일군이 상륙지역을 오판하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연합군 폭격기는 상륙지역인 노르망디의 공격목표 하나를 폭격할 때마다 다른 지역의 공격목표 두개를 폭격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일 실시된 연합군의 기만방법은 빈틈없는 양동작전이었으며, 날이 새기 전 영국의 폭격기부대가 프랑스 북서해안인 칼레로 향했다. 그 목적은 독일군에게 연합군 진격부대의 상륙지역이 노르망디 해안이 아닌 그보다 240km 북쪽의 칼레 해안이라고 오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만작전 폭격기부대는 영국의 레이더연구 권위자 로버트 코크번에 의해 고안된 채프(금속조각)를 투하하여 독일군 레이더 영상에 대규모 공격편대와 함정의 진격을 나타내는 가짜 영상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연합군은 거의 모든 독일군 레이더 시설을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에 파괴하였으나 몇 군데는 기만작전을 위해 계획적으로 남겨두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수학 전문가로 구성된 팀은 극히 복잡한 계산을 통해 길이 13km, 폭 3km의 장방형 공중궤도를 영국 공군 2개 비행대가 비행하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궤도를 프랑스 해안으로 1.6km씩 접근

시킬 것과 선회비행 중에 비행대는 분당 12발의 채프를 투하하도록 계획했다. 수학자들은 거대한 진격부대의 영상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금속조각의 길이까지 산출했는데 가장 긴 것은 180cm나 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독일군 포획 레이더를 사용한 예행연습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프랑스 해안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결국 독일군은 레이더 화면 위에 나타난 것만을 믿고 해안포를 바다로 향해 발사했으며, 연합군 상륙부대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노르망디에 상륙할 수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철저한 작전보안과 함께 적의 방어력을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돌리기 위해 동해와 서해안에서 해·공군과 합동으로 양동작전을 실시했다. 항공작전은 남포부터 군산까지 서해안의 상륙 가능지역을 모두 폭격하되, 상륙이 가장 유력시되는 군산을 맹렬하게 폭격하여 적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유도했다.

### 현대전에서의 기만전술

기만작전은 적 지휘관의 결심을 지연시키거나 오판을 유도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적 지휘통제체계의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기습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기습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이며, 적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적이 알았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시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차 중동전** : 현대전에서 군사기만을 통한 기습으로 승리한 사례는 3차 중동전(6일전쟁)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 공군은 D-day 초기 지중해를 통한 기습시 이집트 전투기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전투기들을 북부비행장에서 남쪽으로 끌어내리기 위하여 기만작전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공격개시일 전에 이스라엘군은 아카바만의 남쪽지역에 대한 항공정찰을 실시했다. 이러한 활동은 이집트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군이 시나이반도 남단지역에 공중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오판하도록 하여 전선에 배치된 20대의 전투기를 남쪽지역으로 이동시키게 했다. 또한 이스라엘 공군은 공격개시일 직전에 전투기들의 정비를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중지하고, 이 상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프로펠러 항공기를 활용하여 전투기가 비행하던 지역을 비행하면서 정상적인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 결과 기습 초기 모든 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다.

**결프전** : 결프전에서도 다국적군은 이라크의 방공망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기만전술을 사용했다. 특히 무인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대공미사일의 위치를 확인하고 방공망을 완전 노출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전자

방해 및 전자기만 등 전자전을 광범위하게 수행했다. 이에 대해 이라크군의 기만작전은 다국적군의 대규모 공중공격에 대비하여 주요 전투장비(미사일 발사대, 항공기, 전차 등)와 주요시설(레이더기지, 활주로, 관제탑 등)의 유사모형을 제작하여 운용했으며, 이들 유사모형을 노출시켜 다국적군의 공중 정찰 활동과 공중폭격을 혼란시키는 등 다양한 기만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다국적군의 공중공습시 상당한 기만효과를 달성했다.

**코소보전** : 코소보전에서 세르비아군은 동맹군작전 전반에 걸쳐 나토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로 전술적 차원의 위장, 은폐, 기만작전을 펼쳤다. 세르비아군은 교전 이전에 대부분의 병력을 병영시설로부터 철수시켰으며, 병력과 장비를 은폐하기 위하여 숲, 동굴, 터널 등의 자연환경과 민가, 학교, 공장, 수도원 등을 이용했다. 또한 위장술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군용차량과 같은 전술적 표적과 고정시설인 교량까지도 은폐시켰으며, 다양한 모의표적을 설치하여 폭격을 유도했다. 그 결과 나토군은 절대적인 정보우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표적 또는 부정확한 표적을 공격함으로써 탄약을 낭비하였고 정확한 적정상황 평가가 곤란했다.

현대전에서 효과적으로 항공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위장, 은폐, 기만전술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상된 탐지기술 습득과 함께 정보분석 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현대전에서도 기만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의 전술적 기만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우세 확보가 긴요하며, 정보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시 및 식별을 위한 수집수단 확충과 분석능력 구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 F-X 50문 50답(4)

공군본부 전력계획처

## 시험평가는 언제, 어디서?

시험평가는 '00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험비행 조종사를 포함한 전문시험 평가단(12명)을 구성('99년 9월)하여 국외 현지에서 항공기 성능 및 군수지원요소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는 대상기종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였으며 Su-35는 러시아 류코프스키 기지, F-15E는 미국 알래스카의 엘멘도르프 기지, Rafale은 프랑스 이스트르 기지, EF-Typhoon은 스페인의 헤타페 기지에서 실제로 우리 조종사들이 탑승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현재 계획예산 4조원보다 가격이 비싸면 대수를 줄일 것인가?

전략적 임무수행 및 지원체계 효율성을 고려한 F-X 최소소요는 1개 비행단급 규모인 60대이나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40대를 우선 확보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만일 40대 이하로 획득규모를 축소시는 전력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고 제반지원시설이나 지원장비의 불변성을 감안시 경제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획득규모를 1/2규모로 축소(40대 → 20대)할 경우 전투력은 50% 이상 감소하나 F-X대당 생산단가 상승(62.2 → 78.4백만불)으로 사업비는 40대 확보기준 대비 약 65% 수준으로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합니다. 따라서 공군은 F-X 40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획득기간을 늘려 연부액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연도별 예산압박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술도입 생산계획은?

공군은 F-X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의 첨단 항공기술을 이전받아 2015년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실현시킬 예정입니다.

F-X사업을 기술도입생산으로 할 것인가, 또는 직구매로 결정할 것인가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제안서를 검토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첨단 항공기술 이전 및 국내항공업체의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직구매시 기술이전 정도는?

기술이전은 무장제어, 항공전자, 비행제어, 시험평가, 추진계통을 대상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시의 부족기술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후속지원보장을 위한 국내 창정비능력, 공군 작전지원능력 보장을 위한 S/W 개조능력, 전시 파손항공기 수리 및 긴급/안전 개조소요 지원능력 이전과 함께, 부품제작 분야에서는 KAI의 7개업체에서 민항기 부품(B747 미익제작)의 40건을 협상대상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F-X 사업을 직구매로 추진할 경우에 기술이전을 받는 방법은 절충교역(OFF-SET)으로 가능합니다. 국방획득관리 규정상 직구매시의 절충교역목표는 총도입가격의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F-X 사업의 경우 절충교역목표를 70% 선으로 정해 놓고 있으므로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조8천억원 상당의 기술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구매로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술이전은 가능합니다. ④

## 거미줄 같은 방공망으로 하늘을 수호한다

- 공군방공무기통제사 -

공군본부 공보과

현대전에서 적을 원거리에서 조기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의 역할은 전투기의 성능이나 파일럿의 기량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적보다 먼저 포착하고 가시거리 밖에서 유도무기를 이용하여 격추하는 고도의 전자전이 바로 현대 공중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 현대 공중전의 핵심

방공무기통제사는 공중감시, 조기경보, 요격관제, 항법보조의 4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군은 전국 산간벽지에 여러 방공관제부대를 두고 이들 부대에서 포착된 정보를 중앙 방공통제소(MCRC)에서 통합 관리하여 신속한 전술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996년 5월 북한 공군 이철순 대위의 귀순작전을 불과 6분만에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은 이러한 공군의 방공관제 노력이 맺은 열매다.

### 섬없이 돌아가는 24시간 4교대 근무

방공무기통제사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기이기에 양성하는 데에도 적잖은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방공무기통제사로 근무한다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방공관제는 임

무의 특성상 24시간 운용되어야 한다. 통제사들은 하루 24시간을 4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일일 4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를 Crew근무라고 한다.

동틀 무렵에 찾아오는 졸음과 피곤은 통제사들이 견뎌내야 하는 가장 큰 고통이다.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며 잠이 쏟아지지만 전투기의 비행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서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에 이 시간부터는 오직 정신력과 사명감만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불규칙한 근무일정 때문에 대부분의 방공무기통제사들은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찾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어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잘 수 없는 소위 Crew병에 걸려 있다.

### 항적 최초 포착의 짜릿함

방공관제부대는 대개 산간고지에 자리잡고 있기에 외부로부터 고립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를 산 정상에서 견뎌내야 하는 고충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을 보장한다는 사명감과 완벽한 영공감시 임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방공무기통제사인 김춘수 중위는 “상변전에 Crew요원들과 외치는 ‘내가 먼저 최초포착, 완벽한 영공방위’라는 구호처럼 우리나라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보람을 느낀다”며 “일촉즉발의 급박한 훈련상황 중에서 조종사가 나의 도움을 통해 성공리에 가상적기를 격추시키고 임무가 성공한 후 명량한 목소리로 그 결과를 알릴 때의 짜릿한 성취감은 통제사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 요격관제 훈련용 시뮬레이터 국내 첫 개발

- 군수사 83정보통신정비창 -

공군본부 공보과

최근 군수사 83정보통신정비창(이하 83창)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요격관제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실전배치, 활용에 들어갔다. 요격관제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지금까지 해외도입에 의존해 왔으나, '00년 7월부터 전문요원 4명을 개발연구원으로 투입, 1년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금년 7월말 개발을 완료하게 되었다.

## 방공관제훈련의 꽃, 요격관제 시뮬레이터

요격관제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자체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가상항적을 생성·통제하고 관제용 콘솔(레이더 모니터)에 항적정보를 시현(示現)하여 관제사들의 훈련에 활용하는 장비이다.

특히 적기 및 아군기에 대한 항적을 식별,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일련의 방공작전운영 과정을 묘사해 주며, 항공기 긴급출동과 요격 등 관제사 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임의로 부여하여 관제사들이 다양한 조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관제사 훈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이다.

지금까지 공군에서는 미국 UNISYS사에서 개발한 TM-1C를 구매하여 운영해 왔으나, 80년대 말의 노후된 기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작전개념에 부합되는 다양한 상황 부여가 곤란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역시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장비가 노후, 성능이 저하되고 부품생산중단에 따른 정비지원이 곤란하였으나 이를 대체할 신형장비 도입에는 많은 예산 소요가 제기되었다.



### 최대 3천대 항적처리, 네트워크화 실현

기존의 TM-1C가 16대의 비행기를 모의 시현하는 제한된 능력을 가진 것에 반해 이번에 개발된 ACT-83 장비는 최대 3,000대의 항적정보 처리능력과 함께 공중상황을 정밀하게 묘사할 수 있어, 기존 장비에서 모의훈련이 곤란했던 대량 항적 출현상황(30개 기종, 기종별 100대)과 전자전 상황 등을 부여하여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신형 요격관제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기존장비처럼 1인용 훈련장비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여러 명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훈련이 가능하고, 탐지-식별-요격 등 한 가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팀워크 훈련이 가능한 멀티형 훈련장비로 개발되었다.

또한 모의 훈련상황을 녹화하여 관제사 훈련에 대한 사후평가 및 분석 등 De-briefing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되어 관제사의 요격관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ACT-83형 신형 요격관제 시뮬레이터는 2년 전에 83장에서 자체개발된 PC-83 콘솔 5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용중이므로, ACT-83형 1대로 TM-1C 5대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필요시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

### 첨단기술이 거둔 패기

기존 모의훈련 장비 도입 가격은 TM-1C와 ADP-2000 콘솔을 합하여 1set에 약 94.6만달러(약 12.3억원)인데 비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장비는 시뮬레이터와 PC-83 콘솔을 합하여 약 870만원(ACT-83 약 20십만원, PC-83 콘솔 약 850만원)이면 충분하여 12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ACT-83 장비 1대는 5대의 TM-1C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현재 ACT-83형 신형 요격관제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실전배치되어 운용중에 있으며 기존의 시뮬레이터 운용관제사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ACT-83형 신형 요격관제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은 최근의 KF-16 독자적 엔진 창정비 능력의 구비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공군 기술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첨단 기술능력 구비를 통한 군의 과학화·정보화와 선진정예 공군 육성을 위한 기술능력 축적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



# 작은 망치의 신화

- '사랑의 집짓기' 운동 현장 -

제38전투비행전대 소위 장 민



무주택 서민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공군 장병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밀러드 풀러 국제 해비타트 총재 등 35개국 800여 해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사랑의 집짓기' 행사는 국경을 초월한 이웃사랑의 감동적인 모습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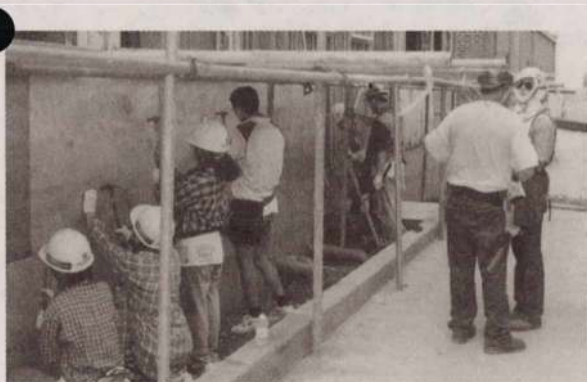
##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는 미국의 실업가 밀러드 풀러가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지면 누구나 자립의지가 강해진다"는 전제 아래 1976년에 시작한 사회운동이다. 지난 76년 이래 25년 동안 세계 79개국에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이 운동의 특징은 누군가 목돈을 내고 전문공사인력을 동원

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페인트칠까지 모든 공정을 자원봉사자들의 손으로 해결한다는 점에 있다. 서툴더라도 직접 연장을 들고 일함으로써 노동의 고통과 보람을 느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한다는 취지다. 입주자 또한 참여해야 하는데, 그래야 집에 대한 애착과 긍지가 생기고 관리, 보수 방법도 알게 된다는 까닭에서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올해엔 특히 '지미 카터 특별건축사업' (JCWP : Jimmy Carter Work Project)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주목을 끌었다. JCWP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84년 뉴욕에서 실시된 행사에 참여한 이후 정례화된 프로그램으로, 이 행사 대상국이 되면 카터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시작은 NO, 끝은 YES

군산시 산북동 소재의 사랑의 집짓기 현장



에 처음 갈 때만해도 사랑의 집짓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나는, 그저 더운 날 공사판으로 일하러 간다는 사실에 푸념만 늘어놓았다. 그렇게 불만에 가득 찬 채로 대충대충 일하고 올 것을 생각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담한 규모의 공사현장이었다.

공사는 이미 진행중이었다. 모두들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더운 날씨에 고된 작업을 하는 데도 얼굴에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분위기가 잘 이해되지 않아 머뭇거리며 주위를 서성거릴 뿐이었다. 그때 내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김연중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군산지회 회장이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 덕에 우리는 또 하나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환영의 말과 함께 해비타트 운동에 대한 이모저모를 설명해 주었다. 비로소 어색함이 사라진 나는 곧바로 작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자기 집을 짓는 것과 같았다. 한치의 작은 실수도 없이 집을 지으려 애썼고, 그러한 열정이 내게도 전해져 망치를 쥔 내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가게 했다.

군산시 산북동 1천80여㎡의 토지를 매입해 무주택 영세민 12가구가 입주할 집을 지은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만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100여명을 비롯하여 육군35사단, 미공군, 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 연인원 1천여명이 참여했다.

우리 38전대 장병들은 시작부터 완공일까지 일반 자원봉사자들과 손발을 맞춰가며 건축 공정 전반에 걸친 지원뿐만 아니라 통역요원과 각종 장비 또한 지원하여 국제 해비타트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다.

### 감동의 현장에는 언제나 공군!

망치는 모든 벽을 허물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의 상징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마무리행사 연설에서 “대통령이나 주지사로 있을 때보다 해비타트의 망치신학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실정을 더 많이 알았다”면서 “처음에는 나의 회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체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는 불확실성과 위험 앞에 노출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구제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자 지역공동체를 기를지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다. 또한 자원봉사는 참여자에게 뿌듯한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 사회의 성숙도를 봉사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봉사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 공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실제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장병들의 도움에 “어떤 단체의 지원보다 큰 힘이 되었다”며 “장병들의 땀방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한 입주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행사에 군이 앞장서주니 더없는 고마움을 느낀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가슴 찡한 감동이 흐르는 현장. 국민이 군을 원하는 현장 어디에나 우리 공군은 함께 할 것이다. 🇦🇺

# COPE THUNDER 훈련 취재기

공군본부 공보과 상사 강 신 영

생애 처음으로 맞이하는 해외출장. 게다가 생각만 해도 서늘한 기운이 등을 타고 흐르는 알래스카라니! 나는 낮선 곳으로의 출발에 앞서 여권, 국제운전 면허증 등 제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만을 남겨 놓고 있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머나먼 타국 땅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뒤척이기만 할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조금은 수면부족을 느끼면서 251비행대에서 신고를 마치고 항공기에 올랐다. 드디어 출발, 힘차게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는 나를 실은 채 한국을 뒤로 하고 있었다. 아련히 멀어져 가는 나의 한국땅이여... 해안선을 벗어나니 먼 망망대해만 보일 뿐이었다.

## 해외에 내딛은 첫발

3시간을 비행한 후 일본의 치토세 공항에 착륙하였다. 생애 처음으로 남의 나라에 발을 내디딘 것이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묘한 기분이 발끝에서 전해 왔다. 일본에서 연료 보급을 하고 다시 이륙, 8시간 비행 후 미국 킹 살몬 기지에 도착하였다. 약간 춥다는 생각이 드는 날씨를 접하며, 드디어 여기가 알래스카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될 앵커리지 엘멘돌프 기지로 다시 이동하여 도착한 시간은 출발 후 장장 20여 시간이 지난 뒤였다. 총 비행시간만 13시간! 모든 조종사와 승무원의 수고로 전개기지에 무사히 도

착할 수 있었다. 항공기 점검 결과 항공기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우리 공군의 고도의 비행기술과 정비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엘멘돌프 기지의 날씨는 낮기온 16~18도 정도로 훈련하기에는 너무나 좋았다.

## 실전같은 훈련, 실전같은 취재

우리의 안내를 맡은 엘멘돌프 기지 '케이스 크레이블' 요원은 숙소, 사무실, 정비사 대기실(일명 4-BAY) 등 훈련에 필요한 공간을 너무나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어 깊은 인상을 주었다. 마치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케이스의 부인은 한국인이었다. 그럼에도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라 개인적으로 한국말을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훈련기간 동안 돈독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연합전술훈련인 COPE THUNDER는 미공군, 해군, 육군 및 한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참가하며, 참가 기종은 F-15, F-16, F-18, EA-6, A-10, Tornado, Jaguar, C-130, KC-135, E-3C 등으로 구성되었다. 2주간의 훈련 동안 전쟁에서의 모든 위협상황과 전투환경이 주어지며, 매 훈련시 특별한 훈련 목표가 설정된다.

우리는 이번 훈련에 1대의 C-130을 이끌고 처음으로 참가하여 CDS(Container Delivery



System), BUNDLE 등의 화물투하와 특전요원 공중투하 임무를 수행하였다. 1 Sorty에 4시간이 넘는 비행, 전쟁환경의 위협요소 속에 AGL 500ft 이하의 저고도비행 등 전시기념하의 실전적인 비행훈련이 연일 계속되었다. 20,324ft의 맥켄리 산맥을 중심으로 광활하게 전개된 알래스카와 캐나다 공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참가부대의 작전능력에 따라 부여된 모의 전쟁상황을 통해 공군력 운용에 대한 실전적 훈련기회를 제공하였다.

#### 백야보다 더 인상깊었던 하얀 케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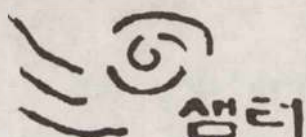
비행은 오후 4시에 시작하여 9시에 끝나 시간상으로는 야간비행이지만, 낮같이 밝은 백야현상 때문에 주간비행처럼 느껴졌다. 또한 새벽 1시 30분경이나 돼야 조금 어두워졌다가 다시 2시면 밝아 오는 날씨 때문에 좀처럼 몸의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알래스카에서의 취재기간 동안 나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 일본, 싱가포르, 엘멘돌프 기지의 주관부서원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예비역인 146대대원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선사해 주었다. 특히 이들과 가졌던 가든파티는 알래스카가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우리의 만남을 잊을 수 없다며 케이크까지 손수 만들어 준 그들!

알래스카에서 만날 수 있었던 한국교민, 아시아나 항공의 지사장님, 대한항공 지사장님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훈련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든 참가자들도 그러하겠지만 3주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보고, 얻고, 실수하고, 깨닫고, 주고, 받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번엔 좀 더 알찬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④





www.samtoh.com

## 병영생활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시원함 『샘터』편집실을 찾아

대담 · 정리 공군본부 중위 김 남 일/사진 정 수 근

초가을로 접어들었다는 라디오 MC의 말이 무색하게 대학로는 여전히 여름이었다. 하지만 건축가 김수근 씨가 지었다는 빨간 벽돌건물은 1층을 열린 공간으로 넉넉하게 풀어놓는 여유로움이 있었고, 시원하게 뻗은 담쟁이들로 작은 숲을 연상시켰다. 그래, 여기서부터는 가을이라고 해두자. '마음으로 여는 따뜻한 세상'을 길어 올리는 『샘터』 편집실을 찾았을 때는 가을이었고, 올해 초 작고하신 정채봉 선생님이 사용하셨다는 다향 묻어나는 방에서 황인희 편집부장과 김동하 차장과의 인터뷰는 시작되었다.

『샘터』의 연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샘터』는 1970년 4월 창간되었습니다. 창간 취지는 삶에 대한 애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배움에 대한 열망과 교양적 지식에 대한 소박한 욕구를 해소하는데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곳에서 솟아나지만 그 물방울은 모두 다른 것처럼, 저희는 '늘 새롭게, 그러나 늘 똑같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용 『샘터』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있던 '병영일기'라는



코너를 '병영특집'으로 확장하면서 장병용 『샘터』를 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병 여러분의 좀더 많은 이야기를 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반용 『샘터』에도 '병영일기' 코너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공군 장병들 글은 『샘터』에 잘 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은근히 불평을 해보았는데, 원래 공군쪽에서는 독자투고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래도 무사고 비행, 공사 여생도, 탑건 등 공군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사들은 꼭 실린다고.)

인터넷에서 디지털 『샘터』를 보았는데, 어쩐지 『샘터』같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i(아이)-샘터'를 말씀하시는군요. i(아이)-샘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사

전적 의미 그대로 '인터넷 샘터'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보는 눈(eye, 아이)이 되는 『샘터』도 될 수 있고, '아이(童)'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추구하는 『샘터』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말로 '아이'는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디지털 『샘터』는 종이책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책에는 실을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들, 예를 들어 동영상, 음악, 그림 등이 가득하지요.(www.samtoh.com)

요즘 같은 때에도 『샘터』가 지향하는 '마음으로 여는 따뜻한 세상'이 가능할까요?

『샘터』의 시각은 독특합니다. 가령 다른 매체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비판하지만 『샘터』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을 칭찬하는 식이지요. 단지 시각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도 『샘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잔잔한 행복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샘터』가 펼쳐는 문화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년 생활수기, 시조, 동화를 대상으로 3대 샘터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인 수녀님, 법정 스님, 소설가 최인호님,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 등의 작품을 책으로 묶어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샘터문학상도 만들 예정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샘터』에 얹힌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샘터』가 한창 전성기를 누릴 때는 『샘터』의 판형인 '4×6배판'을 '샘터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술취한 취객끼리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의



주머니 안에서 『샘터』가 나오자 그 사람만 바로 혼방조치된 적도 있었지요. 『샘터』를 보는 교양있는 사람이 나쁜 일 했을 리는 없다는 거지요.(웃음)

마지막으로 공군 장병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군을 생각하면 높은 곳에 떠서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진취적인 멋과 기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멋과 기상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충실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경험이 일생의 양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덧 샘터건물 3층, 대학로가 훤히 보이는 전망 좋은 방 안으로 거리의 소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학로의 번잡함이 오후가 되면서 눈을 뜬 것이다. 도심 한 가운데,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적시는 작은 샘터가 큰 물길을 만들고 있었다. ☺

## “라켓볼로 아시아 정복!”

空士 이희연 중위, 제12회 아시아 라켓볼 선수권 대회 우승

공군사관학교 중위 박 상 진



지난 1965년, 주한 미 8군을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래 1980년대 들어 일반대중에 게도 급속도로 보급된 라켓볼은, 36년의 짧지 않은 기간 속에서도 그 동안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던 종목. 그런데 공군사관 학교 체육처 교관으로 복무중인 현역 공군 장교가 국제대회 우승을 처음으로 일구어냄으로써 한국 라켓볼사에 큰 획을 긋는 쾌거를 거두었다.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 라켓볼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 팜 등 아시아의 강팀들을 차례로 꺾고 감격의 첫 우승을 차지한 한국대표 A팀의 주전인 이희연 중위(사후 103기)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다.

이희연 중위가 포함된 한국 국가대표 A팀은 국내·외 총 15개 팀이 참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국가대항전 형식으로 치러진 제12회 E-force배 아시아 라켓볼 선수권 대회에서

이희연 중위의 맹활약에 힘입어 준결승에서 팜을 세트 스코어 3 : 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 결승전에서도 현 아시아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4위의 강호 일본 국가대표팀을 2 : 1로 꺾는 대파란을 연출하며 국제대회 출전 사상 처음으로 대망의 우승컵을 안는 감격을 맛보았다.

금번 대회 우승은 한국이 '85년 제1회 대회 참가 이후 16년만에 종합 우승을 달성한 쾌거이며, 국내 라켓볼 보급 수준과 국내의 좁은 선수층을 감안해 볼 때 매우 놀라운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라켓볼 국가대표로 참가해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공군인의 우수성을 과시한 이희연 중위는 “군인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의 명예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군에서 배운 필승의 감투 정신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번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기량을 더욱 연마하여 세계 선수권 대회에 도전하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공군사관학교는 미래의 항공우주시대 주역인 사관생도의 항공체력 육성과 판단력 및 공간지각력 증진을 위해 2, 3, 4학년 정규과목에 라켓볼을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소양교육 과정에 라켓볼반을 운영, 생도 체력증진 및 경기기술 향상은 물론, 대학생 라켓볼 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 매년 참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

## 블랙이글 팀웍!

블랙이글 팬클럽회원 · 항공기 사진작가 김 태 협

얼마 전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팬클럽 초청행사가 200여명의 팬클럽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군부대에 팬클럽이라고 하니가 이상하신가요?

군 특성상 팬클럽의 존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비행팀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이글 팬클럽의 공식 명칭은 이글윙(Eagle-Wing)으로 98년 말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글윙은 on-line상에서 운영되는 블랙이글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늘에 대한 열정과 공군에 대한 애정, 블랙이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블랙이글을 접하게 된 것은 '96년 서울에어쇼' 때였습니다. 에어쇼를 앞두고 TV광고에서 에어쇼를 홍보하는 블랙이글의 기동장면과 조종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설렘, 에어쇼장에서 직접 보았던 블랙이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항공기 사진작가입니다. 특수비행팀의



사진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물론 밀리터리 매니아, 전투시물레이션 매니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 역시 팬클럽 활동을 통해 정보나 자료를 교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글윙의 활동은 on-line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98년 서울에어쇼', '99년 안산에어쇼/청주항공엑스포', '00년 청주항공엑스포' 등에서 블랙이글 홍보부스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off-line에서도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블랙이글 조종사와 팬클럽 회원이 함께 출연하여 'TV내무반 신고합니다'라는 TV프로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 on-line상에서 운영되는 동호회는 3개, 개인홈페이지는 7개 정도가 있습니다. 회원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열정과 공군에 대한 애정, 블랙이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열린 세 차례의 공식적인 블랙이글 팬클럽 초청행사는 오랜 기간 블랙이글과 회원들 간에 쌓아온 믿음과 사랑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팬클럽 초청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블랙이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블랙이글 팀웍!”

## 지금, 가을로 물든 그때가 그림습니다

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 김 성 현

스물여덟, 생후 6개월된 큰 아이의 곤히 잠든 모습을 뒤로 한 채, 서울역에서 진주행 열차를 타야했던 94년이 이리도 멀리 아득히 느껴지게 되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다.

94년 8월 사후 92기로 임관하여 공군사관학교에 부임해보니, 대학 동기가 직속 선임장교로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게다가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던 학교 후배와 동기들이 환영해 주었을 때는 왜 그리도 어색했는지.

하여간 소중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기간 동안 내가 경험한 군 생활은 조바심, 지리함, 뿌듯함, 아늑함 등의 복잡한 감정을 한꺼번에 가져다 주었다.

좀더 느긋하고 열심히 군 생활을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잘난(?) 남편덕에 부대 관사에서 신혼살림을 경험한 집사람에게는 잘해주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아 지금도 미안한 생각이 든다.

나의 군 생활은 참으로 바빴었던 것 같다. 처음 2년은 계획처에서 각종 지휘관 참모회의 준비와 각종 상부 보고자료 작성, 건축물 고도제한 등 각종 대민업무, VIP 방문행사·브리핑 준비와 같은 업무로 눈 코 뜰 새 없이 보내야 했다. 남은 1년은 좀 편해 보려는 심사로 도서관(공군중앙도서관)으로 보직을 옮겼는데, 웬걸 사서과장을 하면서 화단 제초, 장비 및 책 구매 등의 재물관리, 30년 발전계획, 보안·예산 감사, 장비 검열 준비로 쉴틈이 없었다. 심지어는 화장실 오수가 넘쳐 하루 종일 도서관 구석구석을 하이타이 풀어가며 청소하기도 했었다.

군 생활을 되돌아 보면 관사 창문 밖에서



항상 들려오던 개구리와 풀벌레 소리, 놀라울 정도로 청명한 가을을 느낄 수 있었던 푸른 하늘, 겨울이면 하얗게 뒤덮이던 들녘이 아직도 선하게 떠오른다. 특히 계획장교로 근무하면서 파워포인트를 기반으로 하는 브리핑시스템을 구축, 슬라이드로 진행되던 지휘관 참모회의와 각종 브리핑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대체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억에 남는다. 이로 인해 공군본부 지휘관 참모회의 역시 파워포인트로 진행되었고 교육사에도 이 시스템이 전파되었다. 지금도 교육사에 예비군 훈련가서 빔프로젝트를 통해 영화나 교육용 영상을 볼 때는 그때 생각이 많이 난다.

제대한 직후, 군 면제나 방위 갖다온 동료와 후배들로 인해 직장내 서열이 바뀌었을 때는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떠올릴수록 눈웃음이 절로 나게 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버렸다. 나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큰 아들에게도... 지금, 가을이 뚝뚝 묻어나던 그때가 그림다. (가)

# 가을날의 독백

군수사령부 중령 이 면 우

지난 주말 모처럼 만에 팔공산 동봉에 다녀왔다. 아직은 때 이른 단풍타령일지 모르지만 가끔씩 화려하게 옷을 입은 단



풍잎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산에 올랐다. 오를 때는 경관을 구경하느라 미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광경들이 하산길 여기저기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삼삼오오 모여서 연기를 피워대며 고기를 굽는 장면, 망국병의 하나인 화투를 치는 장면, 쓰레기는 여기저기 흩어두고 부끄럼 없이 하산하는 사람들. 왜들 그러는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가을이 되면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단체로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저 말없이 여행객이나 관광객을 품어 안는 자연은 또 얼마나 몸살을 알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 서글픈 생각만 앞선다.

프랑스의 산악인 라이놀드 매스너 경이 말했는가? 산을 왜 오르느냐고 묻자 “산이 다만 거기 있기에 오를 뿐이라고.” 우리네 여행객이나 관광객도 그저 자연의 풍광을 즐기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한없는 혜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꺾고, 자르고, 버리고, 부수고... 자연의 위대함을 아는 지 모르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은 곧 우리들 자신을 훼손하는 일임

을 왜 모르는지.

논어(論語) 옹야편(雍也篇)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

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어진 사람은 정적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즐기며 살고 어진이는 장수한다.” 【子曰 知者は 樂水하고 仁者は 樂山이니 知者は 動하고 仁者は 靜하며 知者は 樂하고 仁者は 壽니라.】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事理)에 통달하여 두루 막힘이 없는 것이 물을 닦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중후(重厚)하게 의리를 지켜 움직이지 않음이 산을 닦았기 때문에 산을 좋아한다고 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주 자연의 원리나 인사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어진 사람은 타고난 착한 성품을 그대로 지녀서 도덕 규범을 잘 지켜 널리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민족도 지혜롭거나 어진 사람의 성품을 닦아 물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니 다만 그저 바라만 보며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는가?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말이다.❶

# 못 생명의 발원과 활짝 피어남의 기쁨

## - 화왕산 억새밭과 창녕 우포늪 -

한겨레신문 문화부기자 최 성 민

가을에 우리 마음을 한결 정결하게 닦고 가라앉혀 주는 것은 억새이다. 억새는 단풍에 들뜬 사람들을 다독거리려 차분히 추운 겨울을 대비하게 해 준다. 경남 창녕 화왕산은 가을 억새꽃 명소 가운데 한 곳이다. 화왕산 억새는 '은억새', '금억새'로 유명하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부터 정오까지 햇살을 정면이나 역광으로 받는 억새꽃은 눈처럼 하얗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다. 이때의 억새꽃을 은처럼 우아하고 곱다고 해서 은억새라 한다. 금억새는 해질 무렵 석양에 비친 억새를 말한다. 풀죽은 햇볕이 억새꽃 목덜미와 억새 줄기 허리춤에 와 닿으면 억새는 어느새 누런 황금빛 가을 춤꾼들의 군상이 된다.

이 은억새, 금억새 사이에 들면 사람도 한 줄기 억새로 몰입된다. 억새덤불 속에서 억새들의 파도에 실려 바람부는 대로 쓸리다 보면 어느새 온몸엔 억새의 갈잎냄새가 잔뜩 밴다. 억새 틈 사이에는 또 베짖이, 여치, 귀뚜라미 등 가을 벌레들이 울음을 뒤섞어 '가을 교향악'을 씩씩이 들려 준다.

억새는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부터가 볼 만하다. 억새꽃이 피어나기는 그보다 보름이나 한달 전이지만 꽃잎이 잔뜩 벌어져야 햇살을 받아내는 품새가 제대로 틀을 잡는다. 우리나라의 억새밭은 어디에나 많다. 억새가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들이나 산의 풀밭, 잡초가 들어서는 자리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화왕산의 억새는 사람 키와 맞먹는다. 억새밭 곳곳에는 사람들이 억새를 눕히고 쉬어가는 '이야기 사랑방'들이 있다. 억새를 누어 깔아놓은 바닥은 폭신평신했던 맛이 웬만한 방석보다 낫다. 화왕산 억새밭을 한 바퀴 도는데는 한 시간 남짓 걸린다. 화왕산 억새밭에서는 능선들을 오르내리며 억새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볼 수 있다. 햇볕의 방향에 따라 보는 각도를 달리하며 은억새, 금억새를 다 함께 볼 수 있는 것이다.

### 억새란?

억새는 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습지에서 사는 갈대가 뿌리를 수직으로 뻗는데 비해 억새는 옆으로 뻗는다. 억새의 몸체 높이는 12m 정도. 잎은 밑부분이 몸체를 완전히 둘러싸고 너비 1.2cm로 선형이며 가장자리가 톱니가 딱딱하기 때문에 톱날같이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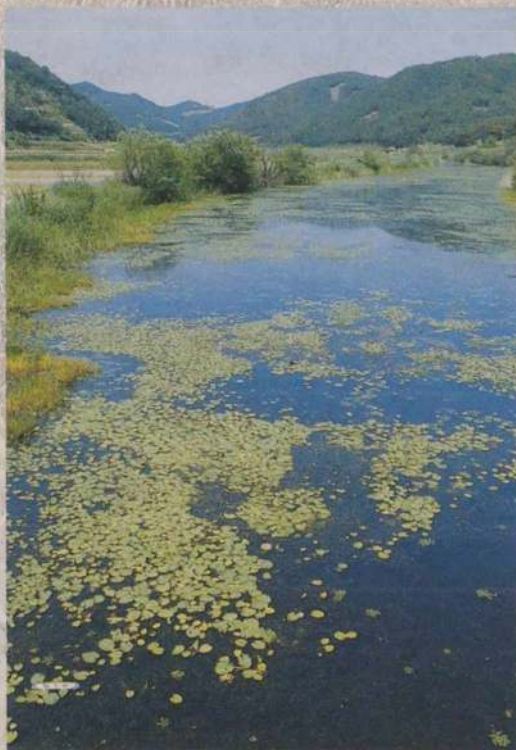


한다. 꽃은 길이 20~30cm이다. 꽃술이 자줏빛과 노란색이 있는데, 노랑 꽃술을 가진 억새를 참억새라 한다.

잎의 너비가 5mm 정도인 것을 가는잎억새, 잎에 무늬가 있는 것을 얼룩억새라고 한다. 전체 포기는 지붕 덮는데 이용하고 뿌리는 한방에서 이뇨제로 쓴다. 지리산 산마을인 전북 남원시 운봉마을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억새지붕 초가집 셋집(억새집)이 있다. 우리의 셋집과 비슷한 형태로 일본 산간지방에는 '합장집'이라고 하는 전통 민속가옥이 있다. 이는 산에 많이 나는 억새를 이용하여 지붕을 두 손바닥으로 합장을 하듯 경사지게 하여 이어서 눈이 많이 쌓이는 것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다.

#### 우포늪, 생명의 풍요로움

창녕은 또한 한국에서 가장 넓은 늪지대를 품고 있다. 낙동강 하류의 저지대라는 입지조건이 창녕을 '물세상'이 되게 한 것이다.



오죽하면 창녕에서는 '메기가 하품만 해도 물이 넘친다'는 말이 다 나올까. 창녕읍 뒤에 있는 마을 진산의 이름이 화왕산(火旺山)인 것도 넘치는 그 물기운을 왕성한 물기운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은 것이라 한다. 가을에 창녕에 가면 이 늪과 화왕산의 대좌 및 그 두 곳의 결실기 생명잔치를 만나볼 수 있다.

창녕의 수많은 늪 가운데서도 우포(牛浦) 늪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늪이다. 창녕군 대합면과 이방면, 유어면 일대에 걸쳐 있는 55만평의 물방죽으로 관개용 작은 저수지 수십개를 합친 것 만한 넓이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땅이 생겨난 시기인 1억 4천만년 전에 생성됐다고 한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기도 전에 낙동강 일대의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우포늪은 이 땅 한쪽 어귀에 벌써 생명을 발양할 '생명밭'을 차렸던 것이다. 우포늪의 별칭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수생식물의 보고', '곤충 박물관', '물고기 창고', '철새들의 낙원', '들꽃 세상' 등등...

우포는 '소별'이라고도 부르는데 크게 보아 우포와 목포(木浦)의 2개 늪지로 구분된다. 창녕읍 북쪽을 가로지르는 토평천이 낙동강과 합류하기 전, 같은 방향 끝머리에 우포가, 그리고 우포 아래쪽에서 북쪽으로 목포가 고구마처럼 드러누워 있다. 넓이와 길이는 우포가 각각 1125평방 킬로미터와 3킬로미터, 목포가 0.53평방 킬로미터와 2킬로미터이다. 우포와 목포는 끝이 서로 맞닿아 V자 형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두 늪은 지난 1973년 목포쪽을 농경지화하기 위해 쌓은 길이 3km의 우환제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늪지는 물론 우환제방 가운데에 있는 수문을 통해 물을 주고 받는다.

우포늪에는 지금까지 수생식물 34종, 수서곤충 35종, 조류 350종, 어류 29종이 살고 있음이 확인됐다. 우포늪에 사는 수서곤충 가운데는 소금쟁이와 물방개가 가장 많고 7월부

터 10월까지의 잠자리가 우포늪의 하늘을 뒤덮는다. 보리밥 잠자리, 쌀밥 잠자리, 밀 잠자리, 실 잠자리, 원뿔 잠자리, 호랑이 잠자리... 그리고 가을에는 고추 잠자리가 지천에 깔리고 잠자리들이 기차놀이 하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떼지어 다니는 것도(실은 짝짓기 하는 것이겠지만) 우포늪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이처럼 수많은 종류의 수중생물을 안고 있는 늪지는 뛰어난 수질정화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포늪의 경우 수천억 원을 들여 세운 댐과 맞먹는 물 저장고 역할도 한다는 게 학자들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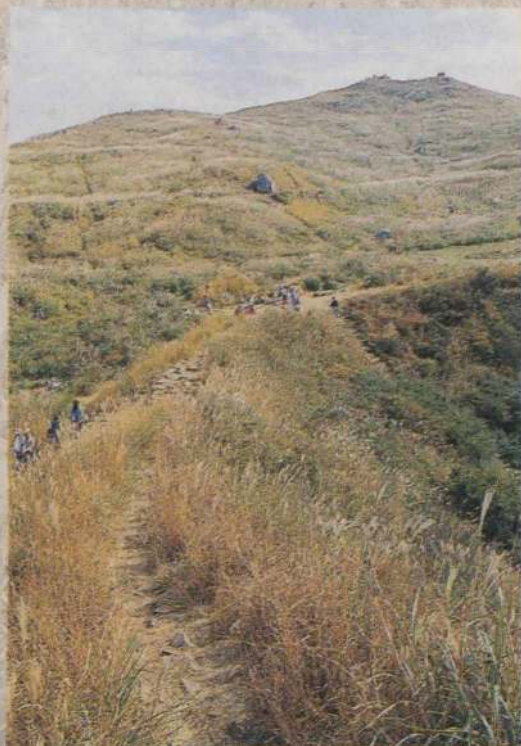
#### 우포늪과 화왕산 역사길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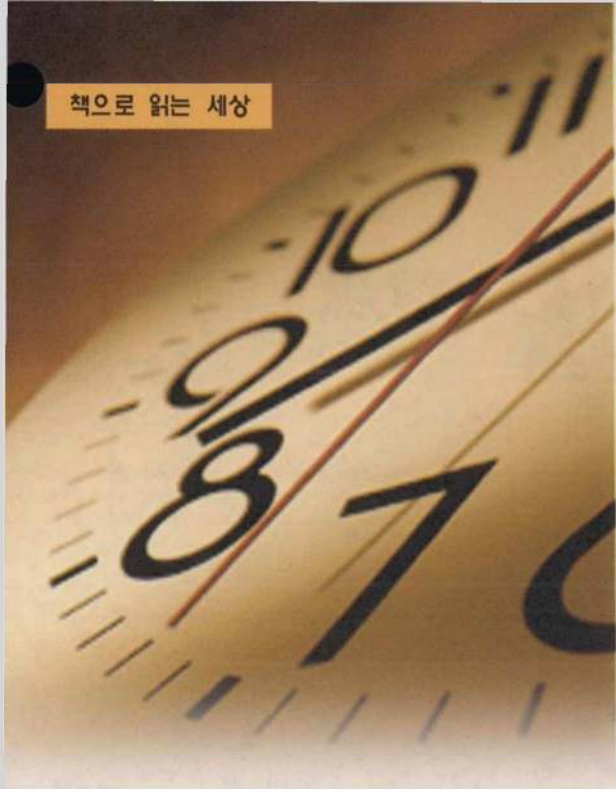
우포늪은 창녕읍에서 서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다. 우포늪가의 대표적인 강마을로는 소목마을이 있다. 소목마을에 가려면 창녕읍에서 이방행 버스를 타면 된다. 아침 6시 4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며 소목마을까지 30분이 걸린다. 또 소목마을 들머리에서 2km쯤 더 가서 우만교를 지난 남쪽으로 1.5km쯤 가면 목포 서안의 강마을 노동리에 닿는다. 숙식을 위해서는 창녕읍내로 나와야 한다.

화왕산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창녕 읍내에서 말흘리로 들어가 화왕산장 옆길에서 시작한다. 정상까지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다다를 수 있다. 다만 정상을 50m쯤 앞둔 곳에 '환장고개'라는 '가로막'이 있다. 이 고개는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숨이 차오른 등산객들이 '환장하겠다'는 탄성을 내질러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거기만 올라서면 금새 눈앞에 광활한 초원과 함께 역세의 군무가 환영잔치를 펼쳐 준다.

수많은 환영군중이 흰 장갑을 끼고 손을 흔들어 맞아주는 듯 억새꽃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환장고개의 고통을 금방 물어버린다. 등산로 들머리 관용사라는 절도 들러볼 만하다. ㊤





## 24시간 사회

KBS 국제부 기자 이진성

하루종일 문을 닫지 않는 편의점이 등장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10시만 넘으면 파장인 우리식 구멍가게와는 달리 새벽에도 늘 휘황한 불을 밝히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가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유로 편의점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편의점의 성공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한다는 평범한 원칙을 깨며, 이른바 어느 때고 일할 수 있는(일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얼마 전 번역, 출간된 『24시간 사회』(레온 크라이츠먼 著, 민음사)는 바로 밤낮의 경계가 사라진 오늘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저 현상만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루 24시간을 '풀 가동'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른바 '24시간 사회'는 사람들이 낮이 아니라 저녁이나 밤에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일할 수 있다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고 있다. 무의미한 밤 시간을 낮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유혹. 저자는 이를 두고 '시간의 지배'라고까지 표현한다. 그 근거로 인간이 자신의 생체리듬을 조절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저자는 때가 되면 밥먹고 자는 인간의 생활습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계의 발명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다.

하루야 밤낮을 바꾸어 가며 일하고 있는 택시기사나 기자, 군인 같은 직업인들에게 이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곧 시행될 예정인 주 5일 근무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토요일에도 직장에 나가지 않게 돼 사람들의 습관과 생활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그것은 하루가 줄어든 만큼(혹은 휴일이 하루 늘어난 만큼) 1일 24시간을 활용하는 밀도가 높아지고, 시간을 분할하는 폭이 더욱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전 사회적으로 '잃어버린 하루'를 보상받기 위해 소비와 휴식의 시간이었던 '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가리라는 예상 역시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사회'라는 화두는 주 5일 근무를 앞둔 우리에게 있어 양날의 칼일지도 모른다.

한때 썸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가 시행된 적이 있었다. 인위적으로 낮을 늘리고 밤을 당겨서 쓰는 과격한 시간통제방법인 썸머타임도 '24시간 사회' 앞에서는 귀엽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



## 韓流



## 熱風



### - 이제는 냉정해 지자! -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최 재 희

한류(韓流·아시아권의 한국 대중문화 선호 현상)열풍이 거세다. 신문·방송·잡지를 불문하고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한류 관련 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그 실제와는 상관없이 기업이나 상품 이미지 국내 홍보에 한류를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학자·교수들도 논문과 기고를 통해 한류 열풍에 한몫하고 있다.

#### 한류를 이용한다!

최근 한국의 기업들이 한류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보도한 기사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LG생활건강이 베트남에서 거둔 성과. LG생활건강은 요즘 베트남에서 외국계 화장품 가운데 브랜드 인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화장품 샤넬(프랑스산)도 일찌감치 따돌렸다는 것이다.

정작 한국에서는 국내 화장품들이 고가 시장에서 샤넬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들에 밀려 경쟁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비결은 바로 한류에 있었다. 지난해 초 인기탤런트 김남주 씨가 출연한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방송되자 재빠르게 김씨를 자사 브랜드인 드봉의 라끄베르 상품 광고모델로 활용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초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이 회사는 올해 베트남 현지 매출이 1천3백만 달러

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60%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라고 한다. 웬만한 마케팅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아시아권의 한류 열풍으로 미소 짓는 국내 기업이 여럿 생겨나고 있다. 가수와 탤런트 등 한국 연예인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들을 홍보 전면에 내세운 관련 제품의 판매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중국의 PC용 모니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은 탤런트 안재욱 씨를 홍보 모델로 기용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거대 기업 외에도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도 한국 가수 현지 공연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단시간 내에 높이는 등 한류를 이용한 성공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처럼 최소한 한류를 이용해 기업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보인다. 또 앞으로도 이 같은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별로 없다.

#### 한류, 한계와 과제

한류 열풍은 크게 두가지 진원지를 가지고 있다. H.O.T.로 대표되는 댄스 그룹과 안재욱으로 대표되는 드라마다.

이제는 해체됐지만 중화권 특히 중국 본토에서 H.O.T.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다. 10대들 가운데는 "H.O.T.를 한번 직접 만나보는 게 평생



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상당수일 정도다. H.O.T. 외에도 베이비 복스, NRG 등이 누리는 인기는 한국 대중음악팬들이라면 좀 의아할 정도여서, 이들 가운데 한 그룹의 멤버들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공연하고 활동하는 게 좋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다. 물론 이들이 한국에서도 인기 그룹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받는 열광적인 환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솔직히 중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댄스 그룹 가운데 해체된 H.O.T. 외에는 한국에서도 최정상급의 그룹은 아니다. 이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알려진 그룹이나 가수가 음악적 실력이나 대중적 인기면에서 정작 본국에서는 최정상급이 아니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최근 대부분 언론 매체의 호들갑에 가까운 보도 경쟁의 뒤안에는 사실 한류에 거품이 심각히 끼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한 가요계 관계자의 말은 공감되는 바가 많다.

그러니까 한국 대중문화, 특히 가요계가 음악적 역량있는 많은 가수들로 이뤄진 탄탄한 저력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지 않는다면, 거품이 낀 유행은 어느 한 순간에 쓸쓸하게 식어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층과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권의 일부 여론이 한류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외신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치밀한 준비가 안 된 상



태에서 보여준 어설픈 공연이 현지 개그 프로그램에서 패러디의 대상이 되며 조롱을 받는 사태도 있었다. 한류는 분명 한국 대중문화와 대중문화산업 전반에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이에 도취돼 무분별하게 일을 벌여서는 될 일도 안 될 것이라는 게 대중문화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 대도시와 서울 등에 '한류 체험관'을 짓기로 하는 등 한류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문화, 특히 대중문화에 관료적 입김이 작용해서 잘되는 사례를 별로 못봤다"는 한 대중음악 관계자의 냉소적인 지적이 뜻하는 바가 뭘까를 냉정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최근 음반산업의 불황과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류의 진원지인 대중음악이 본토인 한국에서 맞고 있는 이런 위기에는 무관심하면서 언론의 경쟁적 한류 보도에 편승하는 것은 길게 보아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 인터넷으로 뉴스를

인터넷서퍼 이 수 영 sy\_lee@cultizen.co.kr



## INTERNET NEWS

인터넷 정보 사냥, 이제는 편리하고 쉽게 생각되는 활동이다. 초등학교 꼬마의 숙제에 서부터 주부의 재테크 관리까지 인터넷 정보 생활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어디 쉬운가. 야후나 라이코스 등 포털 사이트와 검색 엔진 등으로 정보를 찾아보려 하지만, 웬지 보물창고보다는 잡동사니 고물창고 속을 헤매는 기분이다. 컴퓨터, 통신 장비 등 설치와 사용법 익히기도 만만치 않은가 했더니, 사이버 공간 속 길 찾기도 노고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럴 땐 날마다 몇백원씩 주고 사보는 신문이나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가 온가족이 함께 경청하던 9시 뉴스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다들 알고 계시듯, 인터넷 상에도 우리가 늘 보던 신문과 방송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다. 각 언론사에서는 따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매일매일의 뉴스는 물론 종이에 다 실지 못한 얘기들도 모두 올려 놓는다. 방송국에서도 텔레비전 뉴스를 TV 수상기와 인터넷에 동시에 띄워준다.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SEOUL AIRSHOW 2001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SEOUL AIRSHOW 2001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 - □ □ □

## 독 자 엽 서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보내는 사람

이 름

소속(주소)

전화번호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흥과장)

발 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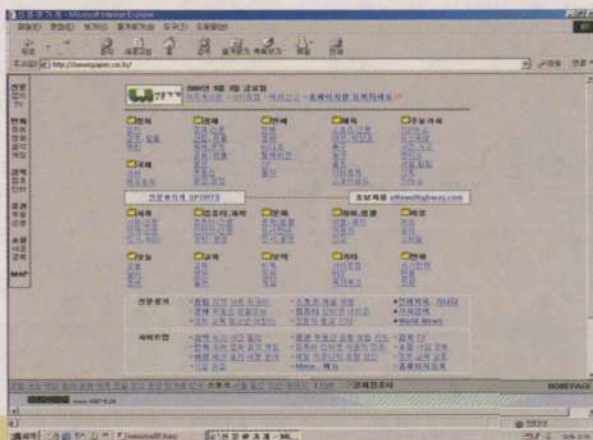
# 월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호 6231-7, (02)506-6231-7

공군지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이나 공군에  
바라는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내주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물론 컴퓨터로 보는 뉴스는 종이 신문처럼 눈에 편안하지 않고 구성도 복잡하다. 또한 인터넷 방송은 켜놓으면 저 혼자 알아서 흘러가는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보다 크기도 작고 일일이 클릭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모든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굉장한 이익과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 인터넷에선 신문이 공짜일 뿐만 아니라, 방송 시간이 지난 프로그램들도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는 것도 그중 일부이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을 지닌 매체, 인터넷에서 좀더 쉽게 뉴스를 찾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 '신문@가게' (newspaper.co.kr)라는 사이트를 활용해보자. 좀 멋진 디자인의 사이트이긴 하지만 아주 편리하게 인터넷의 각종 뉴스 사이트들을 잘 정리해 놓았다. 사이트 하단의 메뉴를 이용해서 11개의 종합 일간지를 섹션별로 차례차례 펴볼 수 있고 심지어 '독자투고' 같은 소소한 난도 따로 모아져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전자신문, 여성신문 등 여러 전문 분야별 신문들과 인지도가

높은 해외의 유명 언론 사이트들의 링크도 제공한다. TV 역시 공중파에서 케이블, 위성까지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게 한눈에 들어오는 표로 정리되었다. 또한 자매 사이트인 '잡지@가게' (napoleon.co.kr)에서는 국내 약 300여 종의 각양각색 잡지들을 한군데 모아 종류별로 분류해 놓았다.

이렇게 뉴스를 찾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즐거운 사이트 한가지, 종합 인터넷 방송국 크레지오 (www.crezio.com/kbsplus/videolib/video1.1.htm)에서는 옛날 7~80년대 텔레비전 뉴스와 <유머 1번지>, <달동네> 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꼭 한번 가서 보시길, 그때 그 시절의 추억에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진다.

그리고 웬만한 인터넷 사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줄 정보도 어느 정도 쌓여졌다 생각되거든, 인포메일의 메일 매거진 (infomail.co.kr) 개설자가 한번 돼보길 꼭 권한다. 나도 인터넷의 정보 제공자가 되어, 많게는 수만명의 회원들에게 매일 직접 유용한 뉴스메일 한 통씩을 발송하는 '언론인'이 되어 볼 수 있다. ☺



## 2001년 서울, 어느 늦은 밤

방송작가 김 은 희

‘차에 받히면 아프다’로 시작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뭘, 저런 당연한 소리를 하나...’ 생각하며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마지막 구절은 대강 이런 내용이었다. ‘자동차는 흥기다. 왜들 그 흥기를 가지지 못해 안달일까. 난 그 흥기를 갖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나는 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맞다. 자동차에 받히면 아프다. 그 아픔을 느끼는 건 차라리 운이 좋을 경우이다. 차의 유리를 관통하거나 멀리 아스팔트 위로 나가 떨어지는 경우라면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일 테니까. 그런데 때론 그 흥기를 생계 수단 삼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흥기로 돌변할 때가 있다.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타본 젊은 여자들이라면 그 흥기 앞에 떨었던 경험을 한번쯤 가져보지 않은 이 있을까. 딱히 밤늦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찌다 탄 택시에서의 불쾌한 경험으로 온전히 하루를 습격당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던가.

그런데 흥기가 되는 건 비단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뿐 만은 아닌 것 같다. 결정적으로 그 사실을 내게 일깨워준 건 바로 한 택시기사와의 만남이었다. 택시기사에 대한 일방적인 공포와 비호감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했던, 어느날 새벽의 뜻밖의 만남.

직업상 난 늦은 밤이나 새벽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당연히 그 시간에 도로의 무법자나 권력자처럼 구는 택시 기사들에게 염증을 느꼈던 때가 많을 수밖에. 그

날 새벽에도 물 젖은 솜처럼 폭 절은 모습으로 택시에 올랐다. 그런데... 어라? 택시 문을 열고 막 차에 오르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나는 게 아닌가. 격무에 지친 나를 맞은 건 탁한 냄새도 밀폐된 공간이 주는 긴장감도 아닌, 뽕뽕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이었다. 택시 안에서 이런 음악을 듣게 되리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좋은 기분의 음악. 마치 피로를 달래주려는 것처럼. 문득 그 차의 주인이 궁금해져 뒷좌석에서 그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모자를 눌러쓴, 한눈에도 내 또래보다 어려보이는 젊은 청년. 운전 전에 몰두하는지 음악에 몰두하는지 묵묵히 앞만 보고 있던 청년에게 차의 속도를 핑계 삼아 말을 건네보았다.

“왜 이렇게 차를 빨리 몰아요? 손님 불안하게.”

“우리한테, 시간이 돈이거든요!”

썩썩한 목소리로 돌아온 쿨(cool)한 대답 한 마디! 난 그 대답이 마음에 들어버렸다. 그러니 말을 이어보려는 순간, 그가 갑자기 합승을 해도 좋냐고 물었고 나는 그만 엉겁결에 그러라고 해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 올라탄 아저씨 한 명.

아... 그 후 20여분간의 끔찍함이라니! 그 아저씨는, 아무리 술에 좀 취해있었다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심했다. 무슨 사연이 그리도 많은지 끊임없이 주절거리던 뜻모를 이야기는 그대로 소음이 되었고, 혼자 말하다 지친 그 아저씨 이번엔 기사를 붙잡고 질문을

퍼부어냈다. 경력이 몇 년이나, 그 전엔 뭘 했느냐, 왜 택시를 모느냐, 결혼은 했느냐. 그 청년, 음악을 조용히 죽이더니 그 질문공세에 예의 그 짝막한 대답들을 곳곳하게 이어나가는 게 아닌가. 결국 나와 택시기사는 처음 보는 그 아저씨의 하루와 그 하루 끝에 술을 마시게 된 경위까지 낱알이 알게 돼버렸다. 그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는지까지.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만큼 참기 힘든 시간이 흘러갔다.

드디어 아저씨가 내리고, 잠시 후 오죽하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터져나왔을까.

“저... 괜찮으세요?”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괜찮아요. 나한테 이런 ‘흥기’ 같은 손님에 대비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흥기’ 같은 손님이라... 하, 그의 말에 따르면 택시기사 생활 오래 하기 위해선 몇 가지 ‘노하우’ 비슷한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우선 그 아저씨처럼 ‘흥기’ 같은 손님에 대한 대비책으로, 딴 생각을 하는 법(좋은 음악은 그래서 필요한 거였다)과 손님이 택시에서 내린 5초 후 깡그리 까먹는 법을 개발했다고. 자신의 수다를 열심히 들어줄 좋은 친구 한

녀석도 어딘가 심어두었다고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속이 ‘소음’으로 꽉 차게 되면 그걸 비우기 위해 이따금 찾아가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떠들어댈 수 있게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룻밤 지나면 얼굴이 꺼렇게 죽고 머리가 하얗게 새버리고 말 거라고. 그 외에도 훌륭한 택시기사가 되려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게 있으니, 바로 승객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라고 했다.

듣고 보니 그럴 법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두 명이 보내는 수십분의 시간이 매번 똑같은 리는 없을 터. 하루에도 수십명의 승객들. 그러니 들어야 할 말과 지켜봐야 할 일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즐겁고 짜증나고 싫증나고.

종로에서 내린 손님한테 뺨맞고 한강에서 탄 손님한테 화풀이도 하겠지. 돈많은 승객에게 당한 무시를 돈없는 승객에게 되돌려 주기도 하겠지. 초콜릿을 먹는 여자를 만나면 갑자기 초콜릿이 먹고 싶고, 주르륵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남자를 만나면 함께 울고도 싶어지고, 가고 싶은 곳을 맘대로 못가고 가고 싶지 않은 곳임에도 가야 하고, ‘파블’을 외치는 손님은 무조건 반갑고 기껏 먼길 도

착해선 돈 없다고 배짱부리는 손님은 하루 중 어떻게든 피해가야 할 ‘지뢰’의 다름 아니겠지... 그들은, 그러다가 심상해지고 무더지고 굳어져가는 걸까. 정작 그의 씩씩한 목소리에선 힘이 솟았지만, 난 그 후로도 오랫동안 택시를 탈 때마다 그의 ‘노하우’를 떠올리며 조금은 씁쓸한 생각에 잠겨야 했다. 택시기사의 표정을 살피며 혹 내가 ‘흥기’ 같은 승객은 아닌가 생각해보는 버릇까지... ❶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하기

공군본부 환경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95%에 해당하는 1만5천여 톤이 매립되고 있으며, 단지 2%에 해당하는 3백20여 톤만이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은 생활쓰레기와 혼합 수거하여 매립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재활용되고 있는 것도 축산농가 등에서 가축먹이로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는 수거, 운반, 매립과정에서 부패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를 유발시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 역시 막대한 수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처리할 경우, 물기가 많아 매립지에서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게 되며, 1일 1만5천톤의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순수 처리비용은 연간 약 126억 원에 이릅니다.

침출수는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단축시키고, 매립지 안정화를 지연시키는 등 매립지 관리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토양오염, 악취, 해충 번식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며, 이로 인한 열악한 매립환경은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매립지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경우, 낮은 발열량과 많은 수분 함량 때문에 소각효율이 저하되며, 소각온도 저하에 따른 불완전 연소로 유해물질의 배출가능성이 커 대기오염의 위험 역시 상당한 실정입니다.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가 대부분 매립처리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보면 각종 2차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먹고 남은 음식을 그대로 쓰레기로 버리면 비위생적인 처리로 인해 우리의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제 푸짐한 상차림을 마련하고 남기는 음식 문화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허덕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빈민 4만여 명이 매일 기아로 숨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음식문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



# 방문판매, 이제는 환불받자!

‘정모씨는 집을 찾아온 영업사원의 권유로 책을 할부 구매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집에 도착한 책이 판매원의 설명과는 달리 매우 조잡한 것을 확인하고 환불받기를 희망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느닷없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찾아오는 방문판매원을 맞이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간혹 뜻밖의 좋은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방문판매로 도서를 직접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인도할 당시 훼손되어 있지 아니한 날개 밀봉의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철회의 방법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동일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그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책을 판매한 회사가 신용카드회사에게 소비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정지나 취소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가 직접 카드회사에 책을 판매한 회사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는가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책 및 대금의 반환과 관해서 살펴보면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책을 반환하여야 하며 책을 판매한 회사는 그 대금을 책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반환받은 날의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그 공휴일의 다음 날) 이내에 환불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어기면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회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도받은 책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책을 판매한 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①



# 재미있는 우주의학 이야기(1)

공군본부 의무감실



## 우주비행을 하면 시력이 좋아지나요?

무중력 상태의 우주비행을 하게 되면 지구에서의 시력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주비행에서 돌아온 후 우주인들의 시력을 검사해 보면 지구에 있을 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우주비행을 할 때 높은 우주공간에 떠 있는 우주인들이 맨눈으로 지구의 만리장성이나 고속도로가 보인다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우주왕복선은 그렇게 높이 떠 있지 않습니다. 고도 200마일쯤에서 비행을 하는데, 이는 보통의 여객기 창문에서 보이는 지평선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 우주에서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발생한 예로 우주인이 우주 멀미 때문에 멀미약을 주사하는 과정에 주사바늘이 빠지면서 피부가 조금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라면 피가 허벅지를 따라 흘러내리겠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동그랗게 비누 방울처럼 피부 위에서 커집니다. 몸이 움직이면 핏방울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꼭 빨간 구슬 같이 보이게 됩니다.

## 땀을 흘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주인들이 땀을 흘리는 경우는 열심히 운동할 때나 우주유영을 할 때입니다. 만일 땀이 난다면 피가 나는 경우와 흡사합니다. 땀은 땀구멍에서 나와 흐르지 않고 피부 위에 이슬 방울처럼 맺힙니다.

## 우주에서 울 수 있나요?

예, 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물이 흐를까요? 피나 땀처럼 흐르지 않고 눈이나 속눈썹에 이슬방울처럼 매달리게 됩니다.

## 우주에서는 키가 커지나요?

예, 무중력 상태에서는 등뼈 마디 사이가 벌어져 키가 1~2인치 정도 늘어납니다. 이때 우주인들은 등에 통증을 느낍니다. 뼈가 늘어나면 근육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근육은 늘어나지 않아 근육이 당기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우주인들이 첫 일주일 동안 이 통증으로 괴로움을 겪습니다.

또한 우주인들의 침낭에는 머리와 발끝 부분을 이어주는 길다란 찌찌가 끈이 있어서, 잠잘 때 몸을 억지로 활처럼 휘어지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휘게 하여 잠을 자면 조금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 시리도록 청명한 10월에

73기상전대 중령 염영경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 일룩배기 황소가/해  
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정지용의 「향수」) 10  
월이 되면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따라 친  
구와 함께 이야기하며 걷던 어린 시절이 그  
리워진다.

10월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청명(淸  
明)한 날이 많아지며 하늘은 더욱더 높아진  
다. 하순경부터는 기온이 급강하하여 첫서리,  
첫얼음이 관측되면서 가을은 깊어간다. 한편  
습도가 매우 낮아져 일상 생활에서나 작전  
시에도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일교차가 연중 최고치를 나타내는 환절기이  
므로 개인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10월  
에 추석이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19년 7윤법

(十九年七閏法)에 의하면 음력과 양력은 19  
년을 주기로 돌아온다. 따라서 82년 10월 1일  
도 금년과 같이 추석이였다. 또한 해마다 날  
짜는 틀렸지만, 10월에 추석이 있는 경우가  
19년 동안 4번으로 결국 약 5년마다 한번씩  
10월에 추석이 있게 되는 것이다. 절기로는  
국화향기가 그윽하고 벼가 여물어 들판이 황  
금 물결로 출렁이고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  
(寒露)가 8일이며 찬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  
(霜降)이 23일이다.

1일은 설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한가위)이다. 가위는 신라 유리왕 때 노  
래와 춤을 추며 놀이를 즐겼던 가배(嘉俳)에  
서 유래되었는데 가배는 국가적 단결 행사로  
출발하여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넉넉함을 나  
눌 수 있는 풍속행사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전우간에  
는 우애를 더욱 다지고 그 동안 찾아 뵈지  
못한 고향의 부모님께는 한 통의 편지를 보  
내드리는 것은 어떨는지.⬇

## 백마 3용사



6·25전쟁 당시 1952년 10월 6일부터 전개된 전투에서 9사단은 중공군 2개사단을 격퇴시키며 전략적 요충지인 백마고지(395고지)를 탈환하였으나 적의 집중적인 기습공격으로 피탈당하게 되었다. 30연대는 즉각 역습을 감행하였으나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중공군의 수류탄 및 기관총 사격으로 아군의 피해는 극심해졌다. 이에 30연대 1중대 1소대장 강승우 소위는 적의 기관총 공격을 봉쇄하기 위해 오규봉 일등병, 안영권 일등병과 함께 적의 자동화기 진지로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고 산화하였다. 이들의 전공은 12차에 걸쳐 뺏고 빼앗긴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그 공로로 1953년 7월 1일 을지무공훈장이 각각 추서되었다.

## 설 충



신라 경덕왕 때의 학자. 자는 총지(聰智), 호는 빙월당(氷月堂). 원효(元曉)가 아버지이고, 요석공주가 어머니이다. 신라십현(新羅十賢)의 한 사람이다. 『증보문헌비고』에 경주설씨의 시조로 기록되어 있다. 출생시기는 태종무열왕대인 654년에서 660년 사이로 짐작된다.

설충은 나면서부터 재주가 많았고, 경사(經史)에 박통하였으며 신라 말로 구경(九經)을 읽고 후생을 가르쳐 유학의 종주가 되었다. 또한 강수, 최치원과 함께 신라삼문장(新羅三文章)으로 꼽혔다. 설충은 향찰을 집대성, 정리하였는데, 육경(六經)을 읽고 새기는 방법을 발명하여 한문을 국어화하고 유학 등 한학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공이 컸다. 우화적 단편산문인 『화왕계(花王戒)』를 지어 당시 신문왕을 충고한 일화가 있다. 1022년(고려 현종 13년) 홍유후(弘儒侯)의 시호를 추증받고 문묘(文廟)에 배향되었으며, 경주 서악서원(西嶽書院)에 제향되었다.

## 유 근



1861년 경기 용인 출생. 본관은 진주, 호는 석농. 1898년(광무 2년) 9월, 장지연, 남궁억, 박은식 등과 함께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황성신문』을 창간하여 독립정신 고취에 힘쓰고,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자 언론을 통하여 반일운동을 펴나갔다. 국권피탈 후, 최남선 등과 『동국통감』 등 역사상 귀중한 저술들을 수집, 편찬·발간하여 널리 반포함으로써 독립의식을 높이고자 힘썼다.

1915년에는 일본인들에게 빼앗긴 경제권을 되찾기 위해 최규익 등과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 민족자본의 축적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꾀하였다. 또한 한민족의 교육은 한민족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한규설, 이상재 등과 함께 '조선교육회'를 설립,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21년에 서거, 상해임시정부가 추도식을 거행하였고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 하늘을 닮은 공군인이 되어 보자구!

공군본부 중앙전산소 병장 김 기 훈

사람들의 옷이 어느새 무거워졌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벌써 10월이 되었구나. 그 동안 공부는 많이 했는지, 재미있는 추억거리는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구나. 난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지.

잘 다녀오마 손을 흔들고 군대라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온 것이 얼마 전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을 보면서 후회를 한다고 해. 그래서 난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데 좀 어렵군.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씩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 우린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 난 그 중에서 공군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내 선택에 후회는 없어. 너희도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의무로서가 아닌 활기차고 보람된 군 생활을 즐기길 바래.

'새 천년 정예공군'이라는 구호아래 지금 공군은 하늘로 우주로 나아가고 있어. 우선, 입대하는 것에서부터 타군과는 차이점이 있지. 너희들 군대들어 갈 때 시험 볼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해봤니? 나도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지. 시험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군대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말야.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입대한 사람

들이라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웬지 더 커 보이는 거야. 나 역시 한 명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하니깐 웬지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 있지.

또, 자신의 전공에 맞게 여러 가지 특기로 분류가 된다는 게 공군의 특징이야. 그래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난 컴퓨터공학이잖아. 그래서 공군 중앙전산소에서 전공을 살려 공군 인터넷을 만들고 있어. 학교 다닐 때는 그저 이론이었잖아. 그리고 놀러 다니느라 아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군대에 들어오니까 전부 다 실력자들인 거야. 선임병들도 처음엔 자신도 못했다면서 하나하나씩 친절히 기초부터 가르쳐 주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더구나. 밖에 나가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

어떻게 보면 군대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 이제 내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너희들도 알겠지? 병역을 그저 '힘들다', '시간낭비다' 하며 기피하려고만 하지말고 내면적, 외면적 성장의 기간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지내다가 보면 어느덧 30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릴 거야. 자, 그럼 사람들이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쳐다보는 파란 하늘을 함께 지켜보지 않겠니? 하늘을 닮은 넓은 마음을 가진 공군인이 되어 보라구! ☺

# 선인의 넋이어 활시위를 당기는 공사들

- 제18전투비행단 국궁동아리 -

제18전투비행단 중위 윤형노

“팽팽하게 긴장된 활시위, 과녁을 조준하는 날카로운 눈매,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팔근육 아래로 잔뜩 긴장된 깍지손! 이윽고 깍지긴 엄지손가락에서 시위가 풀어지면서 화살은 큰 포물선을 그리며 145m 전방의 과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간다. 잠시 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과녁에 살이 명중했음을 알리는 소리가 울린다.”

여느 일선 비행단에서는 볼 수 없는 진기한 풍경이 매일 12:00시 제18전투비행단 국궁장(제공정)에 하나둘씩 모여든 공사들에 의해 펼쳐진다.

18전투비행단은 지난 98년도 9월에 강릉시 궁도협회의 지원으로 부대 내에 1천2백평의 대지에 과녁 3대와 21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대 7개를 보유한 국궁장을 지어 비행단 장병 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궁도는 옛부터 우리 민족에게 가장 대중화된 무예였으며 양반의 자제가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과목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를 통해 심신단련 및 호연지기를 길러왔다. 궁도는 이렇듯 전통무예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로서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에 허리, 팔, 다리 등의 전신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과학적인 운동이기도 하다.

초창기 김동호 상사 등 4명의 멤버로 시작했던 인원이 현재는 총인원 30여명을 넘어서 더 이상 수용능력이 모자랄 정도로 부대 내에서 인기가 많다. 평소 바쁜 업무 중에서도 시위를 놓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확 풀리면서 밀려오는 짜릿한 쾌감을 맛본 18비 공사들은 점심시간을 이용, 국궁장으로 몰려든다. 또한, 대한궁도협회 강릉지부 회장 김원구 씨가 궁도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일 부대를 왕래하며 무상으로 장병들의 국궁지도를 자처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동아리에 가입한 김정호 병장은 “산만한 정신을 집중시키고 멀리 떨어진 과녁을 주시하다 보면 눈도 맑아지고 잡념도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궁을 통한 정신건강 수련을 강조했다. 특히, 18비 공사들은 사대에 올라 활을 쏘기 전에 “활 쏘니다”, “활 넘니다”, “활 배웁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활을 쏘 때에도 ‘고수’, ‘연장자’ 순으로 차례를 지키는 등, 국궁을 통해 선인들이 남긴 교훈과 예법 등을 익히고 있다.

어느새 동아리가 만들어진 지 꼬박 3년째가 되었다. 18비 공사들은 지난날 우리민족이 화살 하나로 당나라의 백만대군을 물리쳤던 그 신기의 궁술을 이어받아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궁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오늘도 긴호흡을 내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 구름 속에서 커버린 나

서문여고 2학년 안 효 진



나는 나를 시험해 보기 위해 여기에 왔다. 아니 어쩌면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 왔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계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조금 큰 나를 발견하는 것.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왔던 것일까? 나를 시험했던 그 수많은 고통들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랴.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 뜻깊은 극기(克己)의 기억들이 하나 둘씩 떠오른다.

군대에 가면 힘들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그것도 겨우 2박 3일 동안 잤다오고선 이런 엄살을 늘어 놓다니. 처음 공군부대로 올라가면서(?) 마냥 즐겁고 신기해 했었다. 이런 높은 곳에 공군부대라니. 구름 위에 떠 있는 나를 보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체험이었다.

첫째날.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군대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간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잊고 싶은 둘째날. 유격훈련과 행군을 했다. 유격훈련을 하면서 총이 책가방보다 더

온 것이기 때문에 차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유격 훈련 후 행군. 처음에는 그저 걷는 걸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걷던 우리는 어느덧 하나 둘 말을 잃어 갔다. 한 봉우리 한 봉우리 넘어갈 때마다 반겨주는 바람 때문에 힘든 것을 조금은 잊을 수 있었지만, 세상에 걷는 것이 이리도 힘들어야. 정말 다리, 머리, 허리, 팔 등 안 쏘신 곳이 없었지만 악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끝까지 시험해 보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솟아 오름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어느덧 조금 커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날, 죽음의 가스체험.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겪어 본 최초의 날이었다. 눈물과 콧물까지... 흑흑... 죽을 맛이였다. 마치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듯한 착각 속에 보낸 공군부대 병영체험은 나의 장렬한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조금은 성숙해진, 조금은 이를 악물 줄도 알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고마움에 새삼 눈뜨게 된 것도 구름 속에서 걷진 소중한 수확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하늘을 지켜주는 모든 공군 오빠 or 아저씨들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던지.

이제는 정말 내 인생 최대의 목표이자 나의 꿈, 교사의 길을 걷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힘들고 때론, 너무 즐거웠던 2박 3일의 군 생활을 생각하면서... (눈물)



무겁게 느껴졌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머리는 혼미해졌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이기려

## 가을 유 감

73기상전대 병장 엄재우

가을을 난 싫어했다. 고등학교 때 계열선택도 자연계로 했을 정도로 난 글쓰기를 싫어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독후감이다 백일장이다 해서 유독 가을에 글짓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내 생애 스물 세 번째의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이번 가을은 군대에서 보내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가을이다. 한기가 도는 찬바람이 불던 3월의 봄부터 돌아나기 시작한 은행나무의 잎이 노랗게 변하는 가을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달궈진 대지에 지칠 대로 지친 한여름 폭염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애타게 기다렸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중용'을, 한편에는 뜨거운 불이 있고 오른편에는 차가운 얼음이 있는 길의 중간을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중용에 대한 비유에 비추어 보자면 사계절 중에서도 가을이 그 중용을 가장 잘 따른다 하겠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의 사이에서 덥지도 춥지도 않으니 말이다.

정말 가을은 사계절 중에서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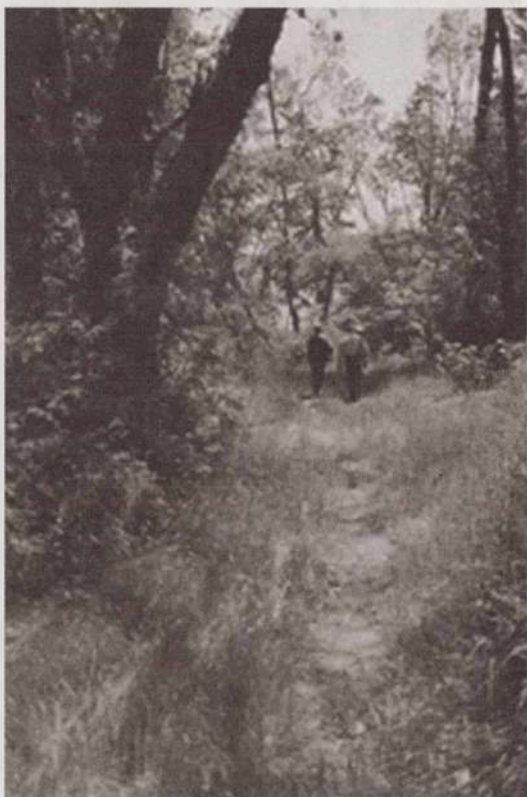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이렇게 무작정 떠나기를 재촉하는 산들바람이 손짓을 하는데 어떻게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책만으로의 여행에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나는 여름엔 그늘에 앉아 독서에 전념하고 가을에 여행을 하라는 법정스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가는 곳마다 피서인파로 연일 북적대는 여름의 여행보다는 풍성한 결실로 가득찬 논과 들을 걷 한적한 가을 시골길을 여행하는 것이 더 즐거울 것이다.

고백하건대 글쓰기가 싫어 본의 아니게 가을을 싫어한다고 했지만 실은 나는 가을을 좋아한다. 청명하고 맑은 하늘은 각박하고 치열한 삶에 지친 나의 마음에 여유를 주며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은 더위에 지친 나의 육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다.

유감은 유감이되, 가슴 시원한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나뿐일까. ⊕



## 지리산이 거기 있었네...

제16전투비행단 병장 송 윤 상

99년 10월 난 잊지 못할 지리산 등정 길에 올랐다. 군 입대 몇 주 전이라 마음이 뒤숭숭해서 그랬을까... 산과는 별로 친하지 않던 내가 지리산 등정길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금요일 오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 7명과 함께 지리산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물론 갑작스럽게 정한 일이라 등산에 필요한 장비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 우선 비상식량으로 라면과 과자 물, 음료수, 랜턴 등을 구입하고, 무작정 지리산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지리산 입구에 들어서니 벌써 시간은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근처 슈퍼마켓에서 랜턴 하나를 더 구입하고 등산길에 오르려고 했을 때,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밤에 산에 오르면 너무 위험하고, 또 별금이 있다고 하면서 한사코 우리를 말리셨다. 우리 일행은 일제히 아주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네'라고 대답은 했지만, 여기서 물러설 우리들이 아니었다. 어느새 우리의 눈빛들은 빨리 올라가자고 서로를 재촉하고 있었다.

계획은 아주 간단했다. 맨 앞사람과 맨 뒷사람만 랜턴을 들고 가기로 했다. 랜턴이 2개 밖에 없어서 아쉬웠지만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어두워서 길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다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 가는 길이 정상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길을 잃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한, 밤에 울부짖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냇물이 흐르는 소리는 꼭 억울하게 죽어서 한 많은 영혼들이 내는 소리처럼 들려 우리들의 가슴에 '공포'라는 두 단어를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우리는 결국 새벽 5시를 넘기고서야 지리산 '천왕봉'에 도착할 수 있었다. 너무 감격스러워 '야호'라도 외치고 싶었지만 추위에 입술이 얼어붙어 움짹달짝도 할 수 없었다. 얼마 후 동쪽 하늘에선 새빨간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온 몸으로 햇살을 느끼며 추위도 잊은 채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산등성이에 뿌연 새벽 안개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 그 광경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이었다.

그렇게 일출을 맞이하고 정신 없이 집으로 돌아온 난 며칠을 끙끙 앓아야만 했다. 잊지 못할 추억은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온몸에 상처와 감기를 선물로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날 선선한 10월이 되면 지리산 '천왕봉'의 일출장면이 눈에 밝힌다.⚡

## 가을, 훈련소 회상

제17전투비행단 소위 송 상 연

오랜만에 만나는 대학 동기녀석의 눈동자엔 잔뜩 호기심이 서려있었다. 뭘 그리도 알고 싶은 건지... 그래, 궁금도 하겠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보냈던 나의 작년 초가을날의 모습이 그녀석 얼굴에도 똑같이 서려 있었다.

"걱정하지마. 다같이 하는 건데, 뭐. 궁금해할 것 없고 그때가면 다 알게 돼... 하지만 맘은 단단히 먹어야 할거야..."

그리곤 웬지 모르게 번지는 입가의 미소. 그래, 그랬었다. 군에 대해, 훈련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던 그해 가을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하던 공부, 친구와 가족을 뒤로 한 망설임과 불안함과 두려움. 하지만 그때 그 가을은 나에게 참 많은 걸 해 주었었다. 입대 전의 시름과 불안함을 덜어 주었고, 훈련받는 동안에는 차분한 위안이 되어 주었다. 연병장을 데굴데굴 구르며, 혹은 지쳐 쓰러져 바라보던 푸르고 드높은 가을 하늘, 그리고 휴식간에 잠시 불어주던 상쾌한 바람들.

하늘을 그렇게도 애절히 바라본 적이 또 있었나 싶다. 그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을. ㊦

## 공군에서 처음 맞이하는 가을

제18전투비행단 이병 박 성 현

가을이다. 고개를 숙이며 새 옷을 갈아 입느라 분주한 단풍나무가 뭔가 아련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갑자기 서늘해지고 스산해진 공기의 흐름은 가을이 왔음을 체감하게 한다. 흔히들 가을은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니 하지만 나에게서 가을은 서글프고 애처로운 계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을이라는 두 글자가 내 뇌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 속의 무게추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다. 쓸데없는 감상에 젖을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나도 모르는 일들이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 조절할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

불과 1년 전이었다. 3년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속칭 '닭살끼풀'이라 불리던 우리 사이는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바위처럼 단단하기만 하던 그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다.

결국에는 그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격차이'라는 이유로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가 버렸다. 떠나간 뒤에 남는 그녀의 그림자로 한동안 고생했지만, 평소 털털한 성격으로 쉽게 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날 덜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입대 전 친구의 한마디였다.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는 마당에 미처 기다려 달란 말은 못하겠어! 그냥 마음속으로 영원히 품고 있을래!"

어제는 어제로 묻어둬야 한다는 내 평소의 신조답지 않게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앞날을 붙잡지는 말아야 한다. 이제 입대한 지 어느덧 5개월째가 가까워온다. 후임병들도 많이 들어와 더 이상 막내 노릇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사나이로서 당당하게 공군에 지원하고, 머리를 깎고 목청껏 소리지르던 훈련병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힘들겠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군생활에 혼을 불살라야겠다. ㊦

### 장병 '네티켓' 교육 강화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 언어폭력·인권침해 등을 무분별하게 일삼고 있어 사이버 공간이 인권사각 지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네티즌 윤리강령'을 선포한데 이어 법무부에서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군이 인터넷/인트라넷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열린게시판' 역시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 폭력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향후 '네티켓' 윤리에 어긋나는 내용(특정인 비방, 불특정다수 음해, 저질, 욕설 등)이 게재될 경우에는 해당글 삭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정보화관련 교육과정에 '네티켓'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정신교육시간을 이용하여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네티켓'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공포! 무시무시한 실화! 심장 약한 자는 금물!

이건 정말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훈련단에 있을 때였다. 나는 어느 때와 같이 훈련을 마치고 세면을 한 다음 취침에 들어가고 하였다. 그때 군기근무가 들어와서 오늘의 CP자 명단을 불러 주었다. 거기에는 나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순번은 4번..

가장 힘든 시간이고 너무 추워서 짜증이 났지만 빨리 자야겠다는 마음으로 취침에 들어갔다. 피곤한 몸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는 CP하번자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다. 몸이 좋지 않았다. 불살을 찢는 듯한 강추위와 맞서며 근무를 선지 10여분.. 도저히 몸이 견디질 못했다. 난 선 채로 즐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무언가의 갑작스런 느낌에 번득 눈을 뜨게 되었다. 사방은 어둡고 고요했다. 눈을 뜨고 다시 근무를 서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몸이 싸늘해지고 자꾸 등뒤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때마침 전에는 기억나지도 않던 무서운 일들이 계속 생각나고 귀신이 자신 옆에 와있을 때 느낀다는 온몸의 털이 일어서는 현상까지 내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시각 01시39분.. 어둠이 깔린 저편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얀 뿔가가 지상에서 1미터쯤 뜬 상태로 내게 날아오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나는 믿고싶지도 않았고 그걸 보는 나는 몸이 움직여 지지도, 목에서 소리도 나오지 않는 채 그 자리에서 눈만 뜨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점점 내게 다가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중대장님이 흰색 추리닝에 자전거를 타고 잠깐 외출하시는 길이었던 것이다. 하하하! ☹

제1전투비행단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서



### 정찰용 무인항공기 국내 첫 개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의 지상 상황을 공중촬영해 지상부대에 전송하는 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국내기술로 첫 개발돼 이른 시일내 전력화된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91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무인항공기가 마지막 전투운용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길이 4.6m, 폭 6.4m로 1대 값이 20억원이 넘는 이 항공기는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된 뒤 미리 입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을 하며 임무를 마친 뒤 낙하산으로 지상에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무인항공기는 시속 140km 속도로 지상 1~2km 상공에서 최대 6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주야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핵심 부품인 영상감지 장비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돼 국내외에 특허 출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상담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 에어쇼 2001', 항공업체 CEO 대거 방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서울 에어쇼 2001'에 프랑스 닷소사의 셰르지 닷소 명예회장 등 100여명의 해외 대형 항공기 제작사의 CEO(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 항공기 제작사 CEO들이 서울 에어쇼를 대거 찾는 것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 자사 항공기를 홍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아시아나항공, 부산국제영화제 공식항공사 지정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항공사로 선정됐다. 항공사측은 영화제 기간 중 부산을 찾는 국내선 부산도착 전 구간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15% 할인해 주기로 하는 등 영화제를 위한 특별이벤트를 준비중이다. ⬇

### 항공우주전략연구소 설립 추진

21세기 항공우주력과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항공우주전략연구소'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윤주 예비역 소장)가 2002년 연구소 개소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항공우주전략 연구의 비약적 발전과 항공우주사상의 범국민적 고양을 가져올 이번 연구소 설립에 공군인과 항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태)6070, 02)824-0494

###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개최

공·육·해군 사관생도들 간의 축제와 화합의 장인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가 10월 6일(토)부터 8일(월)까지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축구, 럭비, 응원의 3개 종목에서 공군 사관학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할 공사생도들의 열정과 패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5951, 02)506-7722



### 제16회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

공군본부가 주최하고 공군사관학교가 주관하는 제16회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대회가 오는 10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경북 문경(단산) 활공장에서 개최됩니다. 푸르른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질 행·패러글라이딩의 진수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6271, 043)290-6271~2



### 공군 작전 기념행사

1951년 7월 한국공군은 단독작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강릉기지를 선정하고 같은 해 9월 28일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를 강릉기지로 이동, 10월 11일 새벽 역사적인 단독출격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강릉기지 출격 전폭기들은 적후방 보급로에 대한 무장정찰 및 보급로 차단작전, 승호리철교 차단작전, 평양 대폭격작전,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등 총 7,818회의 출격을 감행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11월 10일(토) 강릉기지에서 열릴 예정이니 참전용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506-7654~6

### 제10회 항공우주심포지엄 개최

항공우주력 중심의 국방력 건설을 위한 제10회 항공우주심포지엄이 공군사관학교와 공군본부 전투발전단 공동주최로 오는 10월 16일(화)부터 17일(수)까지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21세기의 항공우주력과 항공우주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항공우주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문의 : 효)5820, 02)506-5820

##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개막으로  
이제 전쟁의 승패는 하늘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늘로, 우주로 날아오를  
공군의 무한한 힘과 가능성은  
조국과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튼튼한 밑거름입니다.

우리 공군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진 정예공군으로,  
나아가 항공우주군으로 거듭남을 통해  
시리도록 푸른 조국의 하늘을  
언제까지나 지켜나갈 것입니다.

